

스페인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2. 주요 산업 동향 /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4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4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8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19
대한수입규제동향 /25
관세제도 /27
주요인증제도 /27
지적재산권 /32
통관운송 /3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7
- 외국기업 투자동향 /41
- 우리기업 투자동향 /4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5
- 진출형태별 절차 /61
- 투자입지여건 /6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4
- 조세제도 /6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9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69
- 2. 물가정보 /72
- 3. 바이어발굴 /74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78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81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2
- 7. 이주정착 가이드 /83
- 8. 출장가이드 /91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스페인 王國 (el 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위치	이베리아반도, 지중해 발레아레스 제도, 아프리카 서북쪽 카나리아제도, 북아프리카의 세우따, 멜리야 지역
면적	505,992 km ² (한반도의 2.3배) - 경작지 37%, 목초지 14%, 산림 33% 등)
기후	- 지중해안은 지중해성기후, 내륙은 대륙성기후를 보임. - 내륙은 여름 내내 고온건조하고 북부 해안지방은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음. - 겨울은 우기로 태양일수가 적고 강우량이 많은 편임
수도	마드리드 (Madrid)
인구	4,471만 명 ('06.1월 기준, '07년 6월 스페인통계청(INE) 자료)
주요도시	Madrid(601만), Barcelona(531만), Sevilla(184만), Valencia(246만), Zaragoza(92만) 등
민족	이베리아
언어	- 공식어는 스페인어(castellano) -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나바라, 발레아레스 등 6 개 자치주 언어 함께 사용
종교	국민의 85%가 카톨릭 신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국가원수: 후안 카를로스 1세 (D. Juan Carlos I)
집권당	2004.3.14 일 총선결과 사회노동당(PSOE)집권(2006 년에도 집권당) * 이전 집권당 : 국민당(PP)
총 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싸파테로 (Jose Luis Rodriguez Zapatero) * 이전 총리 :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PP)
입법부	양원제 (상원 208 석, 하원 350 석)
정 당	사회노동당(PSOE) 및 국민당(PP)이 정국 주도 이외 좌익연합(IU), 까탈루냐 연합당(CiU), 바스크당(PNP) 등이 있음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정부

나. 경제지표

GDP (명목)	1조 2,258 억 불 ('06년 기준, '07년 3월 IMF 자료) - 한국 8,883 억 불
실질경제성장률	3.5% ('05년 기준, '06년 8월 스페인통계청 자료) 3.9% ('06년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1인당 GDP	27,767 불 ('06년 기준, '07년 3월 IMF 자료) - 한국 18,392 불
실업률	8.5% ('06년 기준, '07년 4월 스페인통계청 자료) 8.6% ('06년 4분기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3.7% ('06년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공공소비증가율 4.4% ('06년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화폐단위	유로 (Euro)
환율	1유로 = 1,343.69 원 ('07년 12월 7일)
외채	192억9,255 만 불 ('07년 1월, IMF)
외환보유고	170억 불 ('07년 5월, The World Factbook)
산업구조	서비스업 (66.8%), 공업 (29.2%), 농업 (4.1%) ('06년)
교역규모	(2006 년) - 수출 34 억 7,924 만 EURO - 수입 7 억 7,801 만 EURO - 무역흑자 27 억 123 만 EURO (2007 년 상반기) - 수출 19 억 8,119 만 EURO - 수입 7 억 7,801 만 EURO - 무역흑자 12 억 318 만 EURO
교역품	수출: 자동차,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농산물, 연료 및 윤활유 수입: 연료 및 윤활유, 화학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철강제품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중앙은행,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IA

다. 한-서 관계

체결협정	○ 사증 면제 협정(1972) ○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75) ○ 공업소유권 협정('75) 문화협력협정(1977) ○ 항공협정('89)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1994) ○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2000)
양국 관계 주요 일지	○ 1950. 3 외교관계 수립 ○ 1970. 4 주 스페인 상주대사관 개설 ○ 1973. 10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 1973. 12 주 라스팔마스 영사관 개설 (1999.4 폐쇄, 대사관 분관 설치) ○ 1987. 12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개설 (1993.6 폐쇄)
교역규모	○ 우리나라의 수출 34억7천만 불('06년) ○ 우리나라의 수입 7억8천만 불('06년) ○ 무역흑자 26억9천만 불('06년)
교역품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무선전화기, 철강재용기, 공기조절기, 타이어, 건설중장비, 냉장고,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우리나라 수출) 식물성유지, 의약품, 자동차부품, 기타금속광물, 타일, 가축육류, 계축기부품,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원료, 철강관 등 (수입)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 - 1968 년~2007. 3 월 : 26 건, 1 억 8,273 만 불 스페인의 대 한국 투자 - 1962 년~2006. 10 월까지 : 67 건, 1 억 2,816 만 2 천 불
교민	교민수 : 3,606명(IBERIA 반도내 2,324명, Las Palmas 1,282명) - 주요도시 :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까나리아제도)

자료원: 스페인 정부, 스페인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까탈루냐(Cataluña)주 자치권 개정법안 통과

까탈루냐주는 스페인 제 2 도시인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스페인 북동부에 소재한 경제적·상업적 스페인 최고주이다. 자체 공식언어인 까탈란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쓰고 있으며, '나는 스페인인 이전에 까탈란(까탈루냐인)'으로 표현할 정도로 주 구성원의 독립성이 높으며, '까탈루냐주가 남부 안달루시아주를 먹여 살린다'라는 일반인들의 말처럼 중앙정부의 주요 세수원 역할을 한다.

과거부터 까탈란들은 자치권 확대를 통해 주정부에 대한 독립성 확보에 노력해왔으며, 2006 년 개정안은 세수입 관할권, 사법권 확충되어 자치권확대역사에 일획을 긋는 해로 기록된다.

2006 년 6 월 18 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약 74%의 지지율로 『까탈란주 자치권확대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32 년, 1979 년에 이어 세 번째 개정되는 법안으로, 이에 따라 까탈루냐는 유럽에서 가장 폭 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주로 거듭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향후 까탈루냐 자치 정부는 주의 각종 세수권을 현재 일부에서 전체로, 또한 현지공항 출입국 및 항구관리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주 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의 자체적 제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법권 등을 보장받아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현지언론의 평이다. 한편으로 금번 투표에 전체 유권자중 49%만 참가해 다수 까탈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금번 까탈루냐 주자치권 확대를 계기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기타 스페인주의 자치권 확대운동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현재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안달루시아주, 갈리시아주가 있으며, 기타 독립국가로 분리를 희망하는 에따(ETA)가 활동하고 있는 바스크 지역이 있다.

나. 스페인 정부, ETA 와 평화조약 체결 위해 노력

ETA(에따, Basque Homeland and Freedom)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의 독립을 위해 1959 년 시작된 무장조직으로, 행동양식으로 암살, 납치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 EU 및 미국 등은 이 조직을 테러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약 500 여 명의 ETA 조직원이 스페인과 프랑스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북부 및 프랑스 남부에 걸쳐있으며, 고유언어 바스크어를 쓰고 있다. 스페인 과거 집권당인 국민당(PP)는 이 조직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쳤으나, 작년 새로이 집권에 성공한 사회노동당(PSOE)은 온건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 Zapatero 총리가 ETA 와 스페인 정부와의 평화협상(Tratado de Paz)을 시작할 것으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이번 평화 협상에는 현지 정부 외에 EU 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화협상은 현재까지 정부와 ETA 의 줄다리기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측은 과거 1998 년 휴전을 선포했다가 철회한 선례가 있는 ETA 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TA 측은 최근 검거된 지도급 인물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평화협상은 민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 위주로 단독 결정이라는 평이 대세이며, 일부 언론은 현재 독립국이 아닌 바스크 지역에 대해 『평화 조약 (Tratado de Paz)』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와 ETA 측 모두 휴전 철회를 바라지 않는 만큼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이상 마드리드 테러 같은 불상사 없는 평화로운 스페인 만들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 독일 EON 사, 스페인 Endesa 인수 박차

유럽 최대 전기, 수도업체인 독일의 Eon 사가 대 스페인전력회사 Endesa 인수계획을 발표하였다. Eon 사는 지난 2 월 Endesa 를 291 억 유로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스페인 정부의 자국 가스 기업인 Gas Natural 사의 Endesa 인수를 지지해, 스페인 정부의 경제 애국주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Eon 은 스페인 정부를 EU 에 제소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당국이 기업인수에 개입하면서 경쟁과 역내 시장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하였다.

현재까지 스페인의 Gas Natural 사가 약 230 억 유로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으며, 현지 주요 건설 회사인 Acciona 사가 Endesa 의 주식 10%를 인수한 후 지분율을 현재의 두배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해 이 기업 인수를 놓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지난 9 월 Eon 사는 첫 번째 제시한 인수가격보다 약 38% 높은 주당 35 유로의 총 371 억 유로로 인수가격을 상향조정했으나, 아직 Endesa 는 대상기업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라. 불법 이민

스페인은 지리적 입지에서 아프리카와 가장 인접한 유럽국으로,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아프리카 북서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카나리아 제도(스페인령)에 입국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다. 성공할 확률 낮아 실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도중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적발되어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으나 불법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불법이민자수는 한달 2000~3000 여 명 정도이나, 지난 8 월에는 약 3 배 정도 증가한 9000 여 명이 스페인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치안 문제 등과 함께 불법이민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됨. 스페인이 유럽불법이민의 육로 관문이 될 수 있는 만큼 기타 EU 국가들도 스페인의 불법이민문제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다른 유럽국가와 연합해 불법 이민자들 단속을 위한 단속 팀 국경 수비대 (Frontex)를 결성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대 아프리카 국가보조금을 2 배로 인상하는 등 다른 EU 국가와 함께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 거주 허가증 및 노동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는 약 300 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29 세 이상이 약 170 만 명, 25 세에서 29 세 젊은이들의 수가 약 42 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 년에는 약 60 만 명이 추가로 스페인 거주허가증 및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력보충 및 소비시장확대, 저출산율 보완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아프리카 불법이민자 증가에 따른 치안불안 등에 따라 전체적인 이민에 대한 평이 일부이나 왜곡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마. EU, 스페인 TELEFONICA 사 ‘시장 선점 위치 남용’ 벌금 부과

EU 는 지난 7월 4일 스페인 Telefonica 사에 스페인 광대역 인터넷시장에서 시장 선점 위치를 ‘남용(Abuse)’ 하여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데 대해 1억 5,187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EU 반독점 위원회는 동 사례가 시장 선점 업체가 장기간 동안 현지 소비자, 경쟁기업 및 국가경제 전반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 조치 사례가 될 것으로 강조하며, 향후 이 EU 시장에서 시장선점 위치를 점한 기업에 일련의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밝혔다.

벌금 부과 이유는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Telefonica 사가 운용한 광대역 인터넷 가격정책에 있어 높은 요율을 책정하여 경쟁업체들을 견제했으며, 이로 인해 스페인 광대역 인터넷의 가격이 EU 15개국 대비 20% 더 비싸며, 높은 가격적 요인이 낮은 보급률(20%)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번 부과된 벌금은 2004년 Microsoft 사에 대한 EU 위원회의 4억 97백만 유로 벌금 이후 최고액수로, 통신업체의 시장선점위치 남용에 대해 EU 는 금번 사례와 유사하게 2003년 독일 Deutsche Telecom 에 1,260만 유로, 프랑스 Wanadoo 에 대해 1,040만 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EU 측은 2006년 말 스페인통신시장위원회(CMT)가 통신도매가격(사업자간 요금)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당초 Telefonica 사의 벌금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국가차원에서 요금 인하가 없었다라면 벌금규모는 더 컸을 것이라 부연했다. 이에 대해 Telefonica 사는 “설명이 부족하고, 불공적하며 비합리적인 처사”이며, 동 건을 룩셈부르크 사법재판소에 재소할 것으로 밝혔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대한 스페인무역적자 큰 폭으로 증가

한국은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매년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양국간 통상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 스페인 무역흑자는 95년 2억 8천만 불에서 98년 13억 불로 10억 불 대를 넘어섰으며 03년 16억 불, 04년과 05년에는 각각 22억 불을 기록했다.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공식 스페인 방문 시에도 스페인 국왕이 공식적으로 무역불균형을 지적할 정도로 향후 양국간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나. 최근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도 증가 추세

스페인은 연간 540억 불을 해외에 투자하는 세계 5위 FDI 투자국으로서 그간 중남미와 인근 유럽지역에 집중했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으로 진출노력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제약, 유통,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페인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소홀했던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까지는 극동아시아 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한국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볼 때 한국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2007년 스페인 현대아트페어(ARCO 2007) 한국 주빈국 초청

2007.2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스페인 현대아트페어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권오상, 홍경택, 이지은, 백남준 등 한국예술이 소개되었으며, ARCO 참가를 계기로 김금화씨 서해안 풍어제, 한국영화상영 등 각종 문화 관련 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어 스페인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라. 2007년 스페인 세계일류 한국상품전(EXPO COREA 2007) 개최

한-스페인 수교이후 최초로 2007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마드리드에서 '2007 스페인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삼성, LG, 기아차, 현대차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 등 총 97개사가 참여하여 한국의 우수상품과 첨단기술을 스페인에 선보였다. 2월12일 개막식에는 김영주 산자부장관과 홍기화 KOTRA 사장 등 15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스페인을 국빈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도 행사장을 방문, 참가기업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DMB, WiBro, 디지털콘텐츠 등 첨단 IT 및 정보통신 테마관, 인터넷으로 실시간 수출상담 및 샘플대금 결제까지 가능한 첨단 B2B e-Trade 관, 한국홍보관, 스페인홍보관, 세계일류화상품전시관 등이 참가했다.

마. 2008 사라고사 ZARAGOZA 엑스포 개최

우리나라는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개최되는 세계엑스포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사라고사 엑스포는 비정기 공인 엑스포로 “물과 지속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 스페인에 한국과 한국의 문화의 붐을 이어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라고사는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개관

스페인 경제는 지난 수년간 유로지역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여, 2006년 3.5% (민간연구소인 EIU 는 3.5 %, 스페인정부는 3.9%로 집계)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하강 국면에 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민간연구소인 EIU 는 2007년 2.4%, 2008년 2.2%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까지 경기활성화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낮아졌으며, 소비증가 및 유가상승의 여파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외부문에서는 매년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광수입과 금융수지 등 무역 외수지로 무역적자를 상당부분 보전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전망)
GDP 성장률	3.0	3.3	3.5	3.9	2.8	2.4
GDP 성장률 (*)	3.0	3.2	3.5	3.9	3.2	-
민간소비 증가율	2.9	4.4	4.2	3.7	3.0	1.9
공공소비 증가율	3.9	6.0	4.8	4.4	4.4	4.5
총고정자본투자 증가율	3.2	4.9	7.0	6.2	3.2	2.4
평균실업률(Av)	11.3	11.1	9.2	8.5	8.1	7.6
인플레이션	3.0	3.0	3.4	3.5	2.7	2.5
환율(USD/유로, Av)	1,132	1,244	1,246	1,256	1,360	1,383
“ (USD/유로, year-end)	1,261	1,354	1,180	1,320	1,398	1,315
상품수출 (FOB, 10 억불)	158.0	185.2	194.5	216.1	255.8	269.3
상품수입 (FOB, 10 억불)	203.1	251.9	280.1	317.2	361.3	370.2
경상수지 (10 억불)	-31.6	-54.9	-83.1	-98.3	-99.8	-100.9

자료원 : EIU, 스페인정부(*)

나.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최근 스페인은 EU지역 평균성장률(1.6%)의 2배에 해당하는 3.0% 대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여 왔다. (2004년 3.3%, 2005년 3.5%, 2006년 3.9%) 이는 최근 주택 경기과열과 가계채무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대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졌는데 최근 내수둔화, 경쟁력 저하 심화, 대외무역적자 심화, R&D 투자 저조, 이자율 상승 등으로 2007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25개국 평균과 비슷한 2% 성장률이 예상된다.

유로화 도입 이후 장기 저금리 상황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 확산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연쇄작용으로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매년 약 20% 이상 상승하였으나 최근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이자율(Euribor)이 2% 대에서 4.1%까지 인상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스페인 경제에는 내수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2008 년 스페인 경제는 내년도 지속성장세가 예상된다. 주재국 재경부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 년 스페인 경제 3.3% 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경제가 2006 년 3.9%에 이어 2007 년과 2008 년 각각 3.8% 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불어 실업률 지속 감소 및 기업 설비재 투자의 지속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거 GDP 에 악재로 작용하였던 만성적인 스페인 대외무역부문의 경상수지 적자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스페인기업연합회(CEOE)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을 가정할 때 정부의 3.3% 경제성장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동 기관은 내년도 전반적인 융자조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 설비재 투자 및 가계 소비 및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에 따라 스페인 경제 성장이 가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노동시장현황 및 전망

노동시장은 최근까지 경기활성화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05년 8.5%를 기록한 이래 2007년에도 지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분야가 호황을 지속하는 한편 종전의 경기확대 국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 물가현황 및 전망

2006년 들어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앞으로 유로강세, 수입공산품 가격 하락, 내수 둔화와 주택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등이 예상되며 2007년 2월 통계청(INE) 발표 기준 2.4%를 기록하고 있다.

마. 대외부문현황 및 전망

스페인 경제는 대외부문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무역적자액 778억불, 2006년도에는 896억불을 기록하였다. 스페인 정부도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수출은 연초의 부진에서 회복한 10%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유로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회복 및 스페인의 주요 수출국인 독일, 이태리 등 EU 지역의 경제 회복세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건설 등 내수호황에 따른 소비재와 시설 재수요 증가로 1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무역적자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원유와 가스 도입으로 인한 무역적자액 만도 약 52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고유가로 인한 증가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그 외에도 국내 건설부문과 시설 재 수요증가 가 한 몫을 차지했다. EU 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스페인 무역적자는 총 87억 유로로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 수출은 2007년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2.7% 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증가폭(15.4%)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월별 스페인 수출입 증가율

(단위 : %)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6.2	5.5	9.4	3.5	6.0	12.7
수입	6.1	2.7	10.1	4.1	6.8	15.4

자료원 : 스페인산업관광통상부

바. 경제정책

스페인은 1986년 EU가입 이후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EU의 통합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섬유수입과 관련해서도 EU내 수입쿼터 제한에 따라 스페인으로의 수입량도 전체 EU내 수입량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 변화 이외, 부동산 경기 활황 등 국내경제 활성화로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매년 EU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 면에서 수입이 수출을 앞질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무역수지적자를 감소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업관광무역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ICEX를 통하여 활발한 해외진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외 산업관광 무역부 산하 투자진흥청을 통하여 스페인으로의 외부 투자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스페인 수출입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금액	금액
2007.1~6	91,605	137,840	-46,235
2006	169,872	259,559	-89,687
2005*	153,559.0	231,371.6	-77,812.6
2004	146,924.7	208,410.7	-61,486.0
2003	138,119.1	185,113.7	-46,994.6

자료원: 스페인 관세청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구조 개관

스페인 경제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5 년 기준으로 1 차 산업이 3.3%, 2 차 산업 이 29.5%, 그리고 3 차 산업이 6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관광업과 건설업의 전체 GDP 차지 비율이 각각 13%와 11.6%로 매우 높다.

주요 산업지역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수도 마드리드는 행정중심, 제 2 도시 바르셀로나는 자동차, 전자, 섬유, 화학, 의류, 제약, 북부 바스크 지방은 공작기계, 공구류, 철강, 금속가공, 제 3 도시 발렌시아는 가구, 조명기기, 흙 텍스타일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과거 스페인 산업경쟁력은 80 년대 서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자동차 조립산업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였으나, 이에서 탈피하여 기술과 노하우 기반 산업으로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항공, 자동차, 대체에너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담수 처리 부문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으며, 특히 대체에너지 및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인건비 증가와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과 맞물린 현지 생산공장 이전 가속화 문제, 중국산 제품유입에 따른 제조업체의 수입상 전환 등에 따른 강력한 경쟁압력을 받고 있어, 스페인 정부 및 업계는 R&D 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나. 산업별 비중

구 분	비중		
	2003	2004	2005
농수산업	4.08	3.48	3.31
공 업	22.77	18.45	17.88
건 설 업	8.82	10.73	11.59
서비스업	64.33	67.34	67.22

(자료원 : 스페인통계청)

다. 주요 산업 소개

1) 자동차 산업

현재 스페인에는 르노, 푸조, 미쯔비시 등 11 개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 18 개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연간 약 3 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 세계 제 7 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생산차종은 주로 중소형 승용차와 특장차, 버스 등으로 생산량의 80% 가량이 수출된다. 또한, 완성차 산업 외에 Tier 1,2 의 자동차부품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현지 완성차 공장과 Tier1 은 유럽 등 본사 구매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부품업체의 진출이 용이치 않다. 따라서, 대 스페인 수출 한국자동차 부품은 A/S 용 부품 수출이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조립되는 자동차는 주로 중소형 승용차 위주로, 최근 낮은 인건비를 찾아 스페인 기 진출 완성차 업체가 동구권 공장 이전이 가속화 되는 추세로, 근로자들은 단축 근무 및 급여 조정 등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스페인정부는 최근 한국정부와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를 유선대신 무선으로 대체하는 미래형 EMMA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나서는 등 자동차 산업 기술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 농축산, 수산, 가공식품산업

스페인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유럽 국가 중 농업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넓은 국토와 높은 일조량으로 소맥, 감귤류, 포도, 올리브 산업이 유명하다. 또한 스페인에서 생산된 양파와 마늘 등은 좋은 품질로 인해 유럽의 주요 국가 식탁에 오르기도 한다. 이외에 4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680 km 에 달하는 북부 대서양 해안을 보유하는 등 천혜의 조건으로 근해어업 및 양식업, 남부 라스팔마스 섬을 기점으로 원양어업이 발달하였다.

풍부한 자국 농산물, 수산물을 기반으로 주류, 제과.제빵, 축산, 음료 및 수산물 등 식품 음료 가공산업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구가하고 있으며, 유럽 1 위의 관광대국인 만큼 호텔 및 요식산업이 발달하였고 외식을 즐기는 국민성도 식품.음료산업 발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 식품, 음료 시장은 매출액 규모로 유럽 5 위권으로, 국가 산업생산량의 17%, 총 GDP 의 7.24%, 노동인구 14% 고용을 창출하며 스페인의 대표적 제조업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근래 스페인산 올리브유, 포도주, 돈육, 과즙 등의 한국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돈육과 포도주는 '06 년 기준 스페인 전체 대한 수출 비중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제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1 억 3,000 만 불 내외가 수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대외무역청(ICEX)은 2004 년부터 KOTRA 가 주관하는 서울식품전(Seoul Food)에 매년 스페인 국가관으로 참여, 자국의 식품문화 대 한국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3) 대체 에너지산업 : 풍력, 태양열, 바이오메스 등

스페인은 풍력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태양열 산업과 바이오 연료 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풍력터빈제조업체 Gamesa Eolica 사(전세계 생산량의 23.6%),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 Abengoa Bioenergy(전세계생산량 2위), 유럽 최대의 태양열판 생산업체 Isofoton 사가 소재하여 생산기반이 탄탄하며, 최근 발렌시아 정부 주도하에 오렌지를 바이어 연료로 전환하는 연구에 착수하고 있는 등 신규연구활동이 활발하다.

전국적으로 풍력 및 태양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바르셀로나 페르골라(Pergola) 태양열 단지는 면적 36,704 s/f, 2,686개의 모노크리스탈라인 모듈, 최대생산량 449 KW 인 세계 최대태양열 생산단지이다. 2011년까지 스페인 정부는 대체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지 생산의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스페인 대체에너지 산업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해 주고 있다.

4) 바이오 테크놀로지

스페인은 식품산업, 농업, 축농, 제약 및 환경사업이 발달되어 있어 관련 바이오 테크놀로지 중소형 연구소가 다수이며, 다국적 업체의 진출도 활발하다. 최근 4년간 유럽평균 R&D 투자액 증가율 4% 인데 반해, 스페인은 7.6%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인원 약15만 명(연구인력 9만 명), 전국적으로 약 270 여 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5) 금형산업

관련업체수 약 850 개사, 고용인력 1만 2천 여명으로, 업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가족기업 형태가 많다. 분야별로는, 다이 생산량은 연간 5억 유로로 연간 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플라스틱 인젝션 몰드는 연간 2억 유로어치가 생산되며 연간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알루미늄 인젝션 몰드는 생산량은 연 1억5천 유로 선이다. 2005년 기준 수출 2억1천6백만 유로,수입 1억 4천 9백만 유로 선이며, 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멕시코 등지에 수출한다.

저가 몰드는 포르투갈, 중국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대신 정밀 금형 생산에 주력하는 하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6) 건설산업: 주요 인프라 구축, 민간 건설 등

스페인 전국적으로 스페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 종사업체 수는 약 16 만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소규모업체부터 ENR(McGrawHil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gazine) 이 선정한 세계 30 대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에 랭킹된 Ferrovial 및 FCC 사 등 대형 업체까지 다양한 영역에 포진하고 있다.

스페인 대형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주택건설 및 공공부문건설부터 전력, 발전소, 항만, 빌딩, 공항, 도로, 정유, 담수화 시설 등 인프라 구축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두드러져, 과거 식민지로 언어가 동일하고 문화가 비슷한 중남미권에서 다수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건설기자재의 경우 시멘트, 목재, 철강 산업과 더불어 세라믹, 타일 등 관련 부자재 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에서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는 2010년까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공항과 항구, 해안과 철도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 임주보조금 예산을 대폭 증강하여 주택건설관련 경기가 활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7) 선박부품 및 액세서리: 군함, 요트 등

유럽 최대의 조선국이었던 스페인의 조선업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거센 도전을 받아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LNG 선 등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추세이다. 선박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도 폐업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들도 수입상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에 조선업계는 기술력 위주의 여객선, 군함, 요트 제조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긴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며 군함 개발 및 현지 해양 레저 수요에 부응한 요트산업이 발달하여 있다.

8) 정보통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지 수입통계상 수입이 소폭 증가 중이며 아국 기업 진출도 증가 추세이다. 스페인 IT시장은 유럽국가 중 5번째 내외의 큰 시장으로, 한국과 정서적으로 비슷해 ADSL분야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9) 모바일 콘텐츠

유럽 게임시장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게임시장규모를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PC와 콘솔 기반 게임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은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한 초고속망 보급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여는 3G기술등과 같은 혁신기술 도래로 인하여 앞으로 한국 게임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시장이 스페인에서 매우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10) 기계산업

스페인의 기계수입시장은 전통적으로 이태리,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산 기계가 점유해 오다가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가격 경쟁력이 원인이 되면서 금속용 선반기계 등 주로 금속 산업용, 석재용 다이아몬드 커팅기계, 재직기 등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의 시장 상황에 의해-물류 및 유통업 호황- 제조기계가 아닌 Logistic Equipment, 창고 자동화 기계, 자동 운반 시스템 등이 유망 분야, 문화사업분야 기계인 인쇄기, 제본기 등도 앞으로 유망 분야로 볼 수 있다.

라. 정보조사 자원

- 스페인 산업관광무역부 www.mityc.es
- 스페인 재경부 <http://www.minhac.es>
- 스페인 중앙은행 www.bde.es
- 스페인 무역진흥청 www.icex.es
- 스페인 국가통계청 www.ine.es
- 스페인 관세청 www.agenciatributaria.com
- 품목 HS 코드별 관세 검색: TAIRC www.taric.es
- 스페인 관세청 통계자료 <http://aduanas.camaras.org>
- D&B 정보서비스 www.dnb.com
- PUNTEX www.puntex.es

- 각종 전시회 관련 자료 검색
 - 스페인전시회 연합회 <http://afe.es>
 - 마드리드 전시회 www.ifema.es
 - 바르셀로나 전시회 www.firabarcelona.es
 - 발렌시아 전시회 <http://horizontal.feriavalencia.com>
 - 빌바오 전시회 <http://www.bilbaoexhibitioncentre.com>

- 분야별 연감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동화기기, 금형 등)
 - www.anuarioquia.com

- 종합지 및 경제지
 - EL PAIS www.elpais.es
 - LA MUNDO www.elmundo.es
 - ABC www.abc.es
 - CINCO DIAS www.cincodias.es
 - LA GACETA www.negocios.com/gaceta

- 관련 협회
 - 스페인 전자통신협회ASIMILEC www.asimelec.es
 - 스페인자동차제조사협회 ANFAC www.anfac.es
 - 스페인 의료기기협회 FENIN www.fenin.es
 - 수출기업협회 <http://www.amec.es>
 - 전경련 <http://www.ceoe.es>
 - 전자통신협회 <http://www.aniel.es/>
 - 전자 및 IT분야 수출업체 연합회 <http://www.secartys.org/>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연합회 <http://www.anfac.com/>
 - 완성차 제조업체연합 <http://www.anfac.com>
 - 전자상거래협회 <http://www.aecem.org>
 - 조명기기 제조업체연합 <http://www.anfalum.com>
 - 전기제품 제조업체연합 <http://www.afme.es>
 - 시멘트 제조업체연합 <http://www.oficemen.com>
 - 의학분야 기업연합회 <http://www.fenin.es>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 개별국가 또는 경제권과 독자적인 FTA 혹은 이에 준하는 경제협정을 체결 할 수 없으며, 27 개 EU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브뤼셀 소재)에서 심의 결정한 EU 연합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한-서 교역현황

한-스페인 교역규모는 1970년에 1억불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2억불, 1990년 5억불, 1994년 10억불, 2002년 20억불을 달성한 데 이어, 2006년 약 40억 불을 넘어서는 등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 상반기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총 24억 불이다.

양국간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 스페인 한국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은 2003년 20억불 대, 2006년 30억불 대를 넘어서었으며, 2006년 약 35억 불이 수출되어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하며, 무역흑자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상반기 현재 한국의 對 스페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5.6% 증가한 19억 8,1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서 교역현황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수출	1,533	1,518	1,552	2,016	2,809	2,867	3,479	1,981
증가율	2.9	-1.0	2.3	29.8	39.3	2.1	21.4	35.6
수입	291	327	429	445	562	653	778	430
증가율	21.6	12.4	31.1	3.8	26.1	16.3	19.1	10.8
교역규모	1,824	1,845	1,981	2,461	3,371	3,520	4,257	2,411
증가율	5.4	1.2	7.4	24.2	37	4.4	20.9	30.4
무역수지	1,242	1,191	1,123	1,571	2,247	2,214	2,701	1,551
증가율	-0.6	-4.1	-5.7	39.9	43.0	-1.5	22.0	44.5

자료원 : KITA

나. 2007년 상반기 품목별 대 스페인 수출현황

2007년 상반기 기준 대 스페인 한국수출 승용차로 5억1229만 불, 그 다음이 평판디스플레이로 3억 270만 불, 3위가 무선전화기로 1억6,956만 불, 4위가 건설중장비로 5674만 불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품목별 對 스페인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순위	MTI 코드	품목	금액	증가율
수출 총액			1,981,193	35.6
1	7411	승용차	725,327	-1.1
2	8361	평판디스플레이	327,097	11,532.8
3	8121	무선전화기	169,564	42.6
4	7251	건설중장비	56,740	65.7
5	7131	공기조절기	50,167	-31.0
6	3203	타이어	47,648	40.8
7	2140	합성수지	45,925	103.9
8	8230	냉장고	32,522	20.7
9	6132	아열강판	32,114	102,830.6
10	7431	이륜차	17,830	2.4
11	8313	개별소자반도체	16,212	105.5
12	0411	참치	15,252	1,580.6
13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3,225	112.2
14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2,817	49.1
15	4111	폴리에스테일섬유	12,582	36.5

자료원 : KITA

2007 년 상반기 대 스페인 한국 수출 주요 특징은 수출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수출의 현상 유지(소폭감소)와 평판 디스플레이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현지 자동차 판매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또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분이 상쇄하며 전체적으로 대 스페인 한국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HS 90138) 대 스페인 '06 년 수출은 총 3 억 2709 만 불로,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 증가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수출액 기준 대 스페인 상위 수출 제품 중 대기업 제품 군의 2007 년 상반기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기·타이어 및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수출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공기 조절기·컴퓨터는 감소했다.

또한 대기업 제품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 년 42%, 2004 년 53%, 2005 년 64%, 2006 년 68% 로 높아졌으나, 2007 년 상반기 59%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 스페인 주요 수출제품(대기업군)의 對 스페인 수출 점유율

(단위: 천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승용차	644,991 (+48.9)	1,182,707 (+83.4)	1,412,862 (+19.5)	1,598,034 (+13.1)	725,327 (-1.1)
평판디스플레이	4,839 (+256.8)	2,824 (-41.6)	582 (-80.5)	358,324 (+64,871.3)	327,097 (+11,532.8)
무선전화기	58,084 (+39.6)	139,818 (+140.7)	189,162 (+35.3)	211,094 (+11.6)	169,564 (+42.6)
공기조절기	1,857 (+7.3)	2,405 (+29.5)	93,002 (+3,767.6)	82,602 (-11.2)	50,167 (-31.0)
타이어	53,126 (+46.7)	72,925 (+37.3)	62,126 (-14.8)	77,410 (+24.6)	47,648 (+40.8)
냉장고	56,478 (+46.9)	73,747 (+30.6)	68,841 (-6.6)	61,458 (-10.7)	32,522 (+20.7)
세탁기	17,978 (+58.4)	21,487 (+19.5)	12,409 (-42.2)	4,384 (-64.7)	8,057 (+259.9)
컴퓨터	12,431 (1,490.4)	9,115 (-26.7)	3,456 (-62.1)	5,143 (+48.8)	2,737 (-13.8)
소계(A)	849,784	1,505,028	1,842,440	2,398,449	1,363,119
전체수출액(B)	2,015,767	2,808,846	2,867,061	3,479,242	2,284,231
비중(A/B)	42.2%	53.5%	64.3 %	68.9%	59.7%

자료원 : KITA

상기 대기업 완제품 외에 연간 1천만 불 이상 수출되는 제품의 주요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건설중장비 (7251류): A/S 부품류 유압 브레이커·소형 지게차 류
 - 연도별 수출 추세: '03년 9,775천불 (-27.6%) -> '04년 30,670천불(+103.6%) -> '05년 52,559 천불(+71.4%) ->'06년 63,497천불(+20.8%) ->'07년(상반기) 56,740천불 (+65.7%)
- 합성수지 (2140류)
 - 연도별 수출 추세: '03년 30,346천불 (-1.3%) -> '04년 32,827천불(+8.2%) -> '05년 36,006천불 (+9.7%) -> '06년 46,417천불 (+28.9%) -> '07년(상반기) 45,925천불(+103.9%)
- 철강류 (61류): 열연강판·철강 및 비합금강형강·철강선 등
 - 연도별 수출 추세: '03년 37,776천불(-2.6%) -> '04년 56,718천불(+50.1%) -> '05년 54,339천불(-4.2%) -> '06년 223,915천불(+312.1%) -> '07년(상반기) 97,726천불 (+170.4%)
- 폴리에스테르 섬유(4111류)
 - 연도별 수출 추세: '03년 14,780천불(+23.6%) -> '04년 22,774천불(+54.1%) -> '05년 19,956천불(-12.4%) -> '06년 21,068천불(+5.6%) -> '07년(상반기) 12,582천불 (+36.5%)
- 자동차부품 (7420류): 한국자동차 A/S 부품류
 - 연도별 수출 추세: '03년 9,665천불(+29.5%) -> '04년 18,630천불(+92.8%) -> '05년 19,106천불(+2.6%) ->'06년 31,353 천불(+64.1%) ->2007년(상반기) 12,263천불(-30.0%)
- 개별소자반도체(8313류): 태양광전지
 - 연도별 수출 추세: '03년 1,630천불 (+32.4%) -> '04년 2,139천불(+31.2%) -> '05년 961천불(-55.1%) ->'06년 24,383천불(+2,436.5%) ->'07년(상반기) 16,212천불 (105.5%)

대 스페인 주요 수출제품(1천 만불 이상, 대기업 군 제외)별 수출 동향

품목코드	품목명	2006 금액	증가율	2007(1월~06월) 금액	증가율
7251	건설중장비	63,497	20.80	56,740	65.70
2140	합성수지	46,417	28.90	45,925	103.90
6132	열연강판	636	-	32,114	102,830.60
7431	이륜차	30,317	-21.80	17,830	2.40
8313	개별소자반도체	24,383	2,436.50	16,212	105.50
411	참치	4,947	84.70	15,252	1,580.60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2,706	1.40	13,225	112.2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7,283	-5.40	12,817	49.10
4111	폴리에스테텔성유	21,068	5.60	12,582	36.50
7420	자동차부품	31,353	64.10	12,263	-30.00
6229	기타동제품	12,233	75.30	11,812	53.10
6142	철강선	12,437	78.10	10,365	76.30

□ 2007년 상반기 품목별 대 스페인 수입현황

2007년 상반기 대 스페인 수입은 총 4억 3000만 불로 전년동기 대비 10.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의약품(4,235 만불), 기타금속광물(4,153만불), 자동차부품(3,322만불), 올리브 유 등 식물성유지(3,076만불), 돈육 등 가축육류(2,791만불), 합성수지(2,045만불) 등이다.

2006년~07년 상반기 한국의 對 스페인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MTI 코드	품목	2006년		2007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 총액			778,081	19.1	430,006	10.8
1	2262	의약품	69,478	17.8	42,354	16.5
2	1190	기타금속광물	45,472	457.2	41,531	124.6
3	7420	자동차부품	64,475	2.4	33,220	3.7
4	0131	식물성유지	91,834	-0.7	30,762	-36.3
5	0221	가축육류	35,277	83.7	27,971	67.8
6	2140	합성수지	23,573	237.5	20,456	107.8
7	2421	타일	36,208	34.6	20,291	28.4
8	8152	계측기부품	27,203	48.5	14,893	18.9
9	6141	철강관	20,145	43.2	12,458	92.3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1,772	16.8	11,784	6.0

자료원: KITA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6 년 대 스페인 수출은 38 억불을 넘어선데 이어,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스페인 수출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페인은 EU 국가 가운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이어 5 위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어, 2006 년도 교역규모가 40 억불을 넘어선데 이어 금년상반기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50 억불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 스페인 수출품목은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주종으로 주력수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합성수지, 철강, 기계제품, 반도체 등 소재 소재·장비 관련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수출품목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스페인으로부터 주요 수입 제품은 의약품, 자동차부품, 광물, 식물성유지, 가축육류, 돈육, 올리브유 등이다. 수입액 상위 10 대 품목의 전체 수출입 비중을 보면 의약품(9.8%), 기타금속 광물(9.6%), 자동차부품(7.7%), 식물성유지(7.1%), 가축육류(6.5%), 합성수지(4.7%)로 품목별 비교적 고른 수입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올리브유 및 돈육 등 농축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 년 1~11 월 품목별 對 스페인 수출 현황

(단위: 천불, %)

순위	MTI 코드	품목	2006 년		2007 년 1~8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479,242	21.4	3,570,396	13.7
1	7411	승용차	1,598,034	13.1	1,237,394	-15.2
2	8361	평판디스플레이	358,324	64,871.3	646,253	131.1
3	8121	무선전화기	211,094	11.6	388,000	98.5
4	7251	건설중장비	63,497	20.8	94,573	57.2
5	3203	타이어	77,410	24.6	85,246	25.7
6	2140	합성수지	46,417	28.9	79,008	90.8
7	7131	공기조절기	82,602	-11.2	56,140	-25.8
8	8230	냉장고	61,458	-10.7	54,415	-4.3
9	6132	열연강판	636	-	38,208	27,356.2
10	8313	개별소자반도체	24,383	2,436.5	36,526	73.3

자료원: KITA

2007 년 1~11 월 품목별 對 스페인 수입 현황

(단위: 천불, %)

순위	MTI 코드	품목	2006 년		2007 년 1~8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78,081	19.1	765,349	6.3
1	2262	의약품	69,478	17.8	67,187	10.7
2	1190	기타금속광물	45,472	457.2	62,793	38.1
3	7420	자동차부품	64,475	2.4	61,483	3.5
4	0131	식물성유지	91,834	-0.7	56,874	-34.2
5	0221	가축육류	35,277	83.7	46,729	57.0
6	2140	합성수지	23,573	237.5	46,019	102.2
7	2421	타일	36,208	34.6	36,736	10.1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1,772	16.8	25,569	28.2
9	6141	철강관	20,145	43.2	25,336	33.1
10	8152	계측기부품	27,203	48.5	17,275	-29.3

자료원 : KITA

3. 수입규제제도

스페인인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관련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다만 품목에 따라 양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1996/7법률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전자제품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는 전자제품 관련 법률이 별도로 있고 이외에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른다.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특히, 농수산물 중에서도 생선, 갑각류, 두족류 등은 전체의 2/3이상을 EU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 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 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 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 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 는 WTO 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 년 1 월 1 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 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의 세이프 가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 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 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 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 년 1.1 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 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관세제도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 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 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 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 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 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 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 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 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라. EU 의 수입규제 동향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 3 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2007 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 수입규제 동향 전반

- EU 는 2007 년 3 월 30 일 기준 반덤핑조치 130 건과 상계관세조치 12 건을 발효 중이며, 10 개 국 12 개 품목에 대해 가격 약속(undertakings)을 적용하고 있고 81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진행 중인 81 건의 조사 중 2007 년 신규 개시된 조사는 총 9 건으로서 중간재심(interim review) 7 건과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 2 건

2007 년 1~3 월 중 신규조사 분류

구 분	건수	비 고
반덤핑(anti-dumping)	-	
일몰재심(expiry reviews)	-	
중간재심(interim reviews)	7	태국 Steel ropes and cables (07.03.22) 등
수출자재심(new exporter reviews)	-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	2	인도 Graphite electrode systems (07.03.01) 등
세이프가드 (safeguard)	-	
반흡수(anti-absorption)	-	
합 계	9	

자료: EU 집행위 (DG for trade)

반덤핑 및 반보조금 연도별/품목별 신규조사 현황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화학 및 관련제품	5	3	8	3	17	-
섬유 및 관련제품	2	2	4	1	2	-
목재 및 종이	-	1	-	-	-	-
전자	3	2	-	7	5	-
기타 기계엔지니어링	4	-	2	2	2	-
철강	5	-	13	4	5	-
기타금속	-	-	-	-	-	-
기타	4	-	2	9	5	-
합계	23	8	29	26	36	-
반덤핑	20	7	29	24	35	-
반보조금	3	1	0	2	1	-

자료: EU 집행위

반덤핑 및 반보조금 국가별 신규조사 현황

국 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국	4	3	9	8	12	-
인도	3	2	-	1	2	-
인도네시아	2	-	1	-	-	-
한국	1	-	3	1	1	-
말레이시아	1	-	1	3	2	-
파키스탄	1	1	-	1	-	-
러시아	3	-	3	1	2	-
대만	-	-	3	1	3	-
태국	-	-	1	2	2	-
터키	1	-	-	-	1	-
우크라이나	-	-	-	1	3	-
미국	1	-	2	-	2	-
베트남	1	-	3	1	-	-
기타 국가	5	2	3	6	6	-
합계	23	8	29	26	36	-

자료: EU 집행위

□ 우회덤핑방지 조사강화

- EU 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이러한 EU 의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WTO 반덤핑 협정이 조사당국의 개별적 덤핑 및 피해 판정 없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의 우회덤핑방지 관세제도는 개별덤핑산정 과정을 거쳐하고 있고 조사 기간 동안의 피해 판정도 생략하고 있다.
 - EU 의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 우회반덤핑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하고 부품 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 비용이 수출국에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 EU 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2007.12.10 일 기준)

- 총 5 개 품목이 EU 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이중 한 품목(철강제 관연결구류)은 반덤핑 재심 조사중임.
- 또한 1 개 품목(DRAM)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EU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단 섬유(PSF)	5503.20	반덤핑	1999.10.7	2000. 12.28	- 05.5.27, 향후 5 년간 지속 결정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각 6%, 기타업체 10.6%
PET 칩	3907.6020, ex3907.6080	반덤핑	99.11.6	2000. 11.30	- 05.12.1 재심 개시 - 07.2.27 확정관세 부과 결정 - SK 케미컬,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컬은 무세, 기타 업체 148.3 유로/t
양문형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2006. 9.1	- 대우 3.4%, LG 12.2%, 삼성 무세 - 삼문형은 제외
실리콘	2804.69	중국산 우회 덤핑	06.4.21	2007. 1.19	-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 측에 제출기로 함 - 09.3.5 일부로 종료예정
철강제 관연결구류	ex7307 9311, ex7307 9319, ex7307.9930, ex7307 99 90	반덤핑	01.6.1	2002. 8.25	- 반덤핑 확정관세율 44% - 07.8.18 일부로 재심 조사중
DRAM	8542.2111,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상계 관세	02.7	2003. 8	- 상계관세율 32.9%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개황

우리나라는 WTO 협정국으로 협정관세율 이내 관세율이 적용되며 제 3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95년 말까지 EU의 GSP 수혜국이었으나 '96.1.1일부터 수출이 미미한 준민감 품목과 비민감품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GSP 수혜가 중단되었으며 '98.1.1일부터는 GSP 수혜가 전면 중단되었다.

형식승인(homologation)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농수산물 검역이 지연 실시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지만 특기할 만한 무역장벽은 없다.

□ 교역관련 국가기관

- 산업 무역 관광부 Miniterio de Industria, Turismo y Comercio
 - <http://www.mityc.es>
 - Pº de la Castellana, 160, C.P:28071, Madrid
 - Tel: 34 902 446 006
- 산업 무역 관광부 산하 무역진흥청
 - Instituto Español de Comercio Exterior (ICEX)
 - <http://www.icex.es/>
 - Pº de la Castellana 14-16 28046 MADRID
 - Tel.: +34 902 349 000
- 재경부 Miniterio de Economia y Hacienda
 - <http://www.minhac.es>
 - Pº de la Castellana, 162, :28046, Madrid
 - Tel: 34 91 583 7400
- 상공회의소 Consejo Superior de Cámaras de Comercio
 - <http://www.camaras.org>
 - C/ Ribera del Loira, 12 - 28042 Madrid
 - Tel: +34 902.100.096
 - E-mail: info@cscamaras.es
-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s
 - <http://www.ine.es>
- 산업 무역 관광부 산하 투자무역진흥청
 - <http://www.investinspain.org>

스페인 은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관련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다만 품목에 따라 수량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1996/7법률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전자 제품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는 전자제품 관련 법률이 별도로 있고 이외에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른다.

-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index_en.htm

특정 품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세와 세관의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스페인의 관세를 확인해 보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 www.taric.es

2007년 6월 3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6개 품목, 상계 관세 규제 품목은 1건으로 총 7건이 수입 규제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가. 반덤핑 규제품목

- 칼라TV(전규격)
 - 반덤핑 관세율: 15.1%(LG, 삼성제외)(2007.8월 종료 예정)
-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반덤핑 관세율: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2010. 3월 종료 예정)
- PET칩(점착성 173mg/10이상의 PET)
 - 반덤핑 관세율: 호남석유화학 101.4 유로/t, 동국무역 및 기타 148.3 유로/t (대한화성, KP케미컬, SK케미컬 무형의)
- 양문형 냉장고
 - 반덤핑 관세율: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철강제 관 연결구류
 - 반덤핑 관세율: 44%(2007.8월 종료예정)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도 포함)
 - 반덤핑 관세율: 49%

나. 상계관세 규제

- D-RAM: 2006년 4.13일부터 상계 관세율이 34.8%에서 32.9% 하향 조정(삼성전자는 상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07년 6월)

5. 관세제도

가. 제도 일반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공동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 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은 관세와 쿼터규제가 없으며, 비 EU 국가 수입시 EU 공동관세(CXT)를 적용한다.

관세 부가시 HS 분류방식을 채택하며, 종가세 방식이 주도적이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혼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기타 EU 회원국가로서, EU 역외국 중 백여 개 개도국에 특혜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 통일, 중립된 체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GATT 제 7 조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 5~ 15% 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산 제품 및 수입제품에 16% 가 부과되고 있다.

나. 관세 검색 방법

1) 스페인 사이트 Taric (영문검색가능)

- www.taric.es 에 접속
- 상단부 메인메뉴 중 2 번째 항목의 **Acceso a Servicios** 를 클릭
- **neTaric Tariff** 을 클릭
- 좌측 상단에서 품목 또는 HS Code 분류를 선택
- 품목명(영문) 또는 HS CODE 를 기입한 후 클릭.

2) EU 공동관세율 검색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접속
- Hs code 를 모르는 경우, “Tarriff Description” 을 클릭, 제품 Hs code 검색후, “Taric code” 를 클릭 6 자리 입력 후, “ Country of origin” 을 눌러 국가명에서 “South Korea” 를 선택, 하단 “Duty Rate” 클릭
- Hs code 를 아는 경우 - “Taric Code” 를 클릭 6 자리 입력 후, “ Country of origin” 을 눌러 국가명에서 “South Korea” 를 선택, 하단 “Duty Rate” 클릭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제도

27 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 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용품 :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 신발, 섬유제품
- 관광 :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윤활유 : 윤활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 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화란,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ie
Hersteller
Modell
ABC 123

Niedriger Energieverbrauch

A B C D E F G

Hoher Energieverbrauch

Energieverbrauch kWh/Waschprogramm
0.95

Waschwirkung ABCDEFG

Schleudewirkung ABCDEFG

Füllmenge (Baumwolle) kg 5.0

Wasserverbrauch l 49

Geräusch (dB(A) re 1 pM)

Washing Machine

EU Commission

■ 개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등급 라벨표시 및 최저효율기준, 적용에너지효율등급, 연간 에너지소비량 등 표시

■ 대상품목

라벨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 품목)
최저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 품목)

■ 시행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 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제품 보급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 개요



대기전력 절감하는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GEEA와 동일기준 적용하며 같은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 품목)시행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마. 스페인 인증제도

제품과 관련한 스페인 내 인증마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스페인의 규격 및 인증 조건 등을 확인할 때는 스페인 인증 기관인 AENOR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다.

AENOR Mark		AENOR 환경마크	
동 마크는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동 마크는 UNE 생태학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서,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로 하는 원료, 디자인, 제조방법, 사용 및 사후처리까지 검토하여 부여된다.	

□ 스페인 규격협회(AENOR)

- 주소 : C/Genova 6, 28004, Madrid, Spain
- 전화번호 : 34 914 326 008
- Fax 번호 : 34 913 104 518
- 웹 페이지 : <http://www.aenor.es>
- 이메일 : producto@enor.es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지적재산권의 경우 해당 재산권 소유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시 사후 70 년까지 인정된다. 작품이나 지식을 생산하는 순간부터 인정이 되며 신청 즉시 등록된다. 등록 처리 기간은 보통 4 일 정도가 소요되며 스페인저작자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 스페인 저작자협회: <http://www.sgae.es>

관련법령은 지적재산권법 1/1996 (1996 년 4 월 12 일)으로 관련조항은 2001/29/CE (2001 년 5 월 22 일, EU)이다.

○ 상표: 등록 후, 10 년간 인정된다. 등록 시 소요시간은 최대 2 년이다. 관련법령으로는 상표등록법률 89/104/CE (2001 년 12 월 7 일, 스페인), 상표등록법률 17/2001 (1989 년 12 월 21 일, EU) 및 공동상표법률 422/2004/CE (2004 년 2 월 19 일, EU) 등이다.

○ 특허: 등록 후, 10 년간 인정되며 이후 10 년 연장 가능하다. 단, 새로운 제품의 발명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0 년의 기간 동안 인정된다. 관련법령은 특허등록법률 11/1989 (1986 년 3 월 20 일, 스페인), 특허관련조항은 98/44/CE (1998 년 7 월 6 일, EU) 이다.

○ 산업디자인: 등록 후, 10 년간 인정되며 이후 10 년 연장 가능하다. 단, 새로운 제품의 발명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0 년의 기간 동안 인정 된다. 관련법령은 디자인등록법률 20/2003 (2003 년 7 월 7 일, 스페인)이다.

○ 디자인: 등록 후, 10 년간 인정되며 이후 10 년 연장 가능하다. 관련법령은 디자인법률 11/1986(스페인), 회화와 조형법률 98/71/CE (1998 년 10 월 13 일, EU) 등이다.

나. 지적재산권 출원과 보호 관련 한국과 비교

스페인의 특허법은 유럽 특허국의 법률을 따른 법으로서 유럽 다른 국가법과 비슷하다. 또한 스페인의 특허 출원은 국제 특허법들을 따르기 때문에 심사나 취득 절차가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많은 유럽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다.

한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특허청은 특허 출원에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하고 있다. 실체심사는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로서 심사청구제도가 출원공개제도가 한국과 일치한다.

스페인에서 출원하는 한국기업의 특허를 조사한 결과 스페인에서 출원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특허는 대부분 국제출원(PCT)으로 들어오는 특허로 밝혀졌다. 이 PCT 란 자국특허청에 PCT 출원(국제출원)을 하면 조약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수속이다.

이 시스템은 지정한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획득가능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지정한 나라에 특허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번역료, 출원비용 및 대리인 선임료 등의 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WIPO 는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국제예비심사결과를 각국 특허청에 통보하게 되며 각국 특허청은 이 결과를 해당출원의 심사에 이용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중복업무를 최소화 하는 이익도 있다.

이렇게 PCT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이 시스템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스페인에 직접 출원이나 아니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본다.

스페인에서 국제출원의 이용한 수속, 유럽의 특허나 스페인 특허 신청이나 이에 관련된 수속에는 스페인 변리사가 대리해야 한다. 스페인 특허 수속 중 여러사항이 있다면 특허 클레임의 현지어언어 번역문제, 대리인이나 변리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상 언어 문제를 들 수 있으나 큰 문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장점으로는 스페인에 변리사 변호사 수수료가 다른 유럽국가보다 저렴하다는 것으로 똑같은 수속이라도 현저하게 낮은 수임료를 받는 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를 인정하나 스페인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유럽특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유럽 특허의 경우 상기 종류의 새로운 제품 류의 특허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 상표와 디자인

한국의 대기업들은 스페인 여러 법률회사를 통해 상표와 디자인 수속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거의 예외 사항이 없으나 한국기업들이 스페인이나 유럽의 마크 시스템에 대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스페인에서 한국의 기업 마크나 디자인 출원에서 문제 발생한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스페인 특허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OAMI (유럽의 커뮤니티 상표 디자인 기구)에 디자인 심사부서 관계자는 본인이 한국 출장, 회의에서 겪어본 경험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 EU 의 마크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고 유럽 디자인의 경우 한국의 디자인 취득이 거절 되는 케이스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의 따르면 전체 유럽 내 디자인 특허 신청 중 한국기업의 유럽 디자인 신청은 거의 1%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유럽 심사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디자인 심사 경우 방식 심사만 하고 실체심사가 없어 시간이 절약되며 저렴한 수수료에 모든 유럽연맹에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 *Community Design

지리적 표시 경우 유럽 연맹 커미션에 수속해야 하는데 3-4 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스페인 알리칸테에는 이 수속만을 담당하는 법률회사가 있는데 콜롬비아의 커피, 멕시코의 떼킬라, 몽고나 중국 식품의 지리적 표시 특허가 취득되고 있으나 한국의 지리적 표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 년 전부터 유럽 마크법원이 알리칸테에 소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민 대비 외국인 차별여부는 없으며 한국회사의 특허 분쟁이나 소송의 예외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 년 중국업체의 스페인 마크 침해 분쟁이나 마크나 디자인상 문제 소지가 있는 물건들을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스페인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 시 통, 번역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한국과 다른 점으로 스페인의 특허청에는 한국의 특허청과 달리 교육 보도자료 아니면 스페인의 출원 수속에 대한 자료를 개방하지 않으며, 직접 수속하기 힘든 시스템 이어서 더 많은 영문 자료 구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조 : 소비자보호제도

스페인 소비자보호협회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회원 및 소비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ROCONSUMERS 그룹의 회원사로 스페인 내 소비 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스페인 소비자보호협회 Organización de Consumidores y Usuarios

소비자가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협회에 연락하면 제반 절차부터 법정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다만, 통상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 홈페이지 : www.ocu.org

○ 주소 : C/ Albarracín, 21 28037 Madrid

○ 연혁

- 1975년 6월 30일 OCU 재단 창설
- 1975년 12월 6일 OCU 정식 등록
- 2000년 25주년
- 2003년 홈페이지 오픈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스페인으로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현지 도착 시 통관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Packing List, B/L, C/O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시기에 맞춰 현지 공식 관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관 대행업체 (Forwarding Company)가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 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승인번호 (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세관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통관, 관련경비 납부의 순서로 통관이 진행된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 관련법령 및 규정, 제출서류 및 진행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페인어로만 지원)

한편, 스페인에서는 수입완제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가가치세를 통관 후 국내 수입업체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최종 소비자 판매 후 국세청 신고 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기타 네덜란드 등 EU 조세 선진국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 스페인관세청

http://www.aeat.es/wps/portal/Organigrama?url=Aduanas+e+Impuestos+Especiales/Procedimientos+Aduaneros/Esquema+de+Importaci%C3%B3n&channel=301164ec7c379010VgnVCM1000004ef01e0a____&ver=L&site=56d8237c0bc1ff00VgnVCM100000d7005a80____&idioma=es_ES&menu=0&img=0

나. 운송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운송 시 항공의 경우 직항편이 없으므로 유럽의 주요거점인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등의 도시를 경유하여 마드리드 및 스페인의 각 도시로 운송된다. 이 경우 통상 1주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DHL, OCS 등의 특송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2-3일이 소요된다.

선박 운송 시에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의 2개 주요 항구를 통하여 운송되는데 이 경우 40일 이상 소요된다. 항구 도착 후 통관 작업을 거쳐 국내운송까지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여 전체 운송일정을 예상하여야 한다. 국내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에이전트가 따로 없는 경우 절차 진행에 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스페인 내 국제 항구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헤시라스, 빌바오 등 4곳이며 바이어의 소재지와 가장 인접한 항구를 사용하는 것이 내륙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송하고자 하는 스페인 내 지역에 따라 항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착 항구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스페인 내륙 운송비는 비싼 편으로 바이어 소재지 항구가 아닐 경우에는 내륙 운송료가 선박 운송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근래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소재 스페인령인 까나리아 군도로의 운송 루트는 Busan - Algeciras - Canaria 군도로의 운송 경로를 이용토록 권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바르셀로나를 경유하는 선박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주에 금요일 1편 만이 운항되어 대기물량 대비 운항편 부족으로 2-3주간 보세 구역에 적재되어 납기에 차질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창고료 등 부대 경비가 추가 발생되어 바이어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다. 국제항구

스페인 전역에는 총 28 개의 항구가 있으며, 한국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항구는 북부 바르셀로나(Barcelona)항과 동부 발렌시아(Valencia) 항이다. 통상 한국 부산항에서 내륙 마드리드로 물건을 보낼 시 내륙운송을 거쳐 약 30 ~ 45 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각 항구에 대한 정보는 스페인 진흥청의 <http://www.puertos.es> 에서 볼 수 있다.

스페인 각 항구별 위치



(자료원 : 스페인진흥청)

라. 국제공항

전국적으로 47 개의 공항이 있으며, 마드리드 바라하스(Barajas) 및 바르셀로나 공항 등에는 여타 유럽국가 외에도 미국, 중남미 등 주요 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 한국과의 직항은 2005 년 한국과의 직항이 시범 개통되었으나 폐쇄되어 현재까지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런던, 프라하 등을 통해야 한다. 2007 년 대한항공이 서울-마드리드 간 직항을 재 개설할 예정이다. 스페인 각 공항에 대한 정보는 스페인 진흥청의 <http://www.aena.es> 에서 볼 수 있다.

스페인 각 공항별 위치



(자료원 : 스페인진흥청)

IV. 투자

1. 투자환경

스페인은 최근 10여 년간 유럽평균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986년 EU 가입과 2002년 유로존 편입 등 글로벌 경제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최근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유럽의 새로운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의 발언권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다소 주춤하기는 하겠지만 경제성장률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근 유럽 강대국에 비해 그간 낙후되었던 특성상 경제개발 속도가 다른 선진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4200만 명의 내수시장과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을 갖춘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이 높다. 또한 유럽, 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여건, 그리고 중남미 지역과의 역사적인 관계 등으로 해당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EU경제 편입으로 인한 물가 및 인건비 급상승, 그리고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중동구권 국가의 EU 가입으로 인한 투자유치 매력도와 경쟁력의 반감 등 부정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탄탄한 내수시장, 양호한 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근 유럽 국으로의 진출 용이성 등 스페인의 투자 매력도는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외국기업의 대 스페인 투자총액은 2000년에서 2002년 기간 중 정점을 유지했으나 그 후 감소세를 보였다. 2005년 스페인 외국인 총 투자액은 2004년 대비 10.6%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스페인 내 지주회사(ETVEs)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액은 오히려 23.6%의 증가를 보였다.

연도별 대 스페인 외국인 투자 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부문 수치는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다시 1999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대스페인 외국인투자총액 추이

연도	대스페인 외국인투자	
	총투자액 (백만 유로)	순투자액 (백만 유로)
1993	5,429	3,573
1994	6,529	3,240
1995	5,392	3,544
1996	5,473	2,770
1997	6,822	4,045
1998	9,199	4,067
1999	18,434	13,738
2000	38,309	29,343
2001	34,786	28,952
2002	32,523	28,749
2003	18,178	14,802
2004	18,581	9,055
2005	16,618	10,273

자료원: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자료

2003-2005 대스페인 외국인투자 구성

(단위: 백만 유로)

년 도	2003		2004		2005			
	총투자액	순투자액	총투자액	순투자액	총투자액	증감	순투자액	증감
외국인투자총액	18,178	14,802	18,581	9,055	16,618	-10.6	10,276	13.5
외국인투자액 (지주회사투자제외)	10,252	6,886	11,680	2,324	14,433	23.6	8,309	257.5
지주회사투자액	7,927	7,916	6,901	6,731	2,185	-68.3	1,967	-70.8

자료원: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자료

지역별로 살펴보면 OECD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체 투자의 96%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을 갖춘 EU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EU 시장에서 생산 또는 영업망을 갖춘 Global Player 들이 기존 시장 의 확대 또는 신규수요 개척을 목적으로 인근 유럽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지역별 투자현황 (지주회사투자제외)

(단위: 백만 유로)

국 명	2003년	2004년		2005년		
	총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금액	금액	%	금액	%	증감
OECD	9,835	11,061	94.7	13,988	96.9	26.5
EU	8,962	10,251	87.8	11,424	79.2	11.4
비 EU 유럽국	190	139	1.2	559	3.9	301.3
비유럽 OECD 국	683	672	5.8	2,004	13.9	198.3
Tax Heaven 국	212	193	1.6	180	1.2	-6.4
라틴아메리카	65	73	0.6	33	0.2	-55.2
합 계	10,252	11,680	100.0	14,433	100.0	23.6

출처: 스페인 산업 무역 관광부 자료

스페인은 투자통계를 최종 투자국과 원 투자국 기준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최종 투자국은 투자자금이 스페인에 도착하기 직전의 투자국을 기준으로 하며 원 투자국은 투자자금이 나온 최초 투자국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 투자국 기준 주요 투자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독일,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로 전체 투자의 80%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원 투자국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전체 투자의 45%를 차지 하면서 단연 선두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17%), 영국(8%), 그리고 독일(8%)순 을 보였다.

주요국가별 투자현황(지주회사투자제외) - 최종 투자국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년대비 증감
네덜란드	3,693	31.6	7,028	48.7	90.3
미국	570	4.9	1,920	13.3	237.1
독일	369	3.2	1,194	8.3	223.8
룩셈부르크	1,6832	14.4	1,118	7.7	-33.6
프랑스	1,600	13.7	585	4.1	-63.4
영국	1,331	11.4	561	3.9	-57.9
스위스	129	1.1	547	3.8	323.6
포르투갈	1,138	9.7	365	2.5	-67.9
이탈리아	245	2.1	315	2.2	28.4
멕시코	14	0.1	99	0.7	596.7
핀란드	8	0.1	97	0.7	1,060.4
벨기에	37	0.3	60	0.4	60.5
일본	24	0.2	59	0.4	141.9
스웨덴	60	0.2	58	0.4	-4.0
벨리세	9	0.1	47	0.3	426.7
기타	768	6.6	379	2.6	-50.6

자료원: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자료

주요국가별 투자현황(지주회사투자제외) - 원투자국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년대비 증감
프랑스	1,556	13.3	6,454	44.7	314.9
미국	1,843	15.3	2,461	17.1	33.5
영국	2,035	17.4	1,205	8.3	-40.8
독일	370	3.2	1,201	8.3	225
네덜란드	853	7.3	417	2.9	-51.1
스위스	148	1.3	405	2.8	174.1
포르투갈	1,042	8.9	381	2.6	-63.4
이탈리아	260	2.2	295	2.0	13.6
멕시코	1,758	15.1	221	1.5	-87.4
일본	43	0.4	196	1.4	359.9
룩셈부르크	436	3.7	169	1.2	-61.2
스페인	371	3.2	140	1.0	-62.1
핀란드	9	0.1	137	1.0	1392.2
캐나다	145	1.2	87	0.6	-39.5
이스라엘	23	0.2	73	0.5	213.5
기타	790	6.8	588	4.1	-25.6

자료원: 스페인 산업 무역 관광부 자료

투자분야는 2005년 기준 텔레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전체의 44.2%로 가장 투자가 활발하였으며 화학산업 분야 7.7%, 자동차 제조산업 분야 7.5%, 부동산 분야 6.6% 순을 보이고 있다.

텔레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최근 이동통신 이용자수 급증으로 스페인에 진출한 외국 통신 기업들의 고속 인터넷망 확대 투자 및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산업 분야는 연간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제약분야의 꾸준한 성장이 두드러진다. 산업 비중 면에서는 기초화학, 산업용 및 소비용 화학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화학산업의 R&D 투자도 활발하여 전체 제조업 분야의 27%를 차지하며, 특히 제약분야의 R&D 투자비중이 높아 전체 화학산업 중 71%를 차지한다.

스페인은 자동차 생산 세계 8위국으로 유수 다국적 기업의 조립생산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최근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으로 일부 생산설비의 동구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유럽 내 조립생산 기지로서 위상이 다소 흔들리고 있으나 관련 설비 및 R&D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주택값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년간 건설업 경기도 호황을 보였다. 북유럽인들의 스페인 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남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골프장, 주택 건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인 마드리드가 위치한 마드리드 주에 전체 투자의 30.9%가 집중되었으며, 그밖에는 제 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탈루냐 주가 전체 투자의 17.8%를 흡수하였다.

산업분야별 투자현황(지주회사투자제외)

(단위: 백만 유로)

산업분야	2003년	2004년	2005년		
	총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금액	금액	금액	%	전년대비증감
농목축수산업	50	53	27	0.2	-47.9
전기가스물생산유통	704	683	64	0.4	-90.6
광물원유채취	109	74	77	0.5	4.8
식음료담배	114	370	274	1.9	-25.8
섬유및의류	15	213	25	0.2	-88.1
제지출판디자인	404	141	123	0.9	-12.8
화학고무플라스틱	1,629	733	1,209	8.4	64.9
- 화학산업	(1,365)	(677)	(1,113)	(7.7)	(64.3)
기타제조업	745	2,689	1,798	12.5	-33.1
건설	72	52	132	0.9	155.6
유통	857	2,566	800	5.5	-68.8
호텔	338	131	166	1.2	26.7
운송통신	2,201	763	6,645	46.0	770.4
- 텔레커뮤니케이션	(2,116)	(501)	(6,376)	(44.2)	(1171.8)
은행보험금융중개	772	1,611	851	5.9	-47.2
부동산 및 관련 서비스	1,344	1,331	1,836	12.7	37.9
- 부동산	(853)	(879)	(954)	(6.6)	(8.5)
기타	897	268	403	2.8	50.1
합계	10,252	11,680	14,433	100.0	23.6

자료원: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자료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 투자 통계

2007 년 6 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건수는 26 건, 투자금액은 1 억 8,272 만 달러 규모로, '98 년 말 외환위기로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02 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2007 년 6 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최신집계자료

연도별 대 스페인 투자신고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투자건수	0	1	1	0	2	1	1	2	1
투자금액	0	3,288	1,611	4,829	22,272	10,320	1,160	9,056	56,038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1~3 월	계
투자건수	3	0	2	1	1	3	2	2	0	26
투자금액	231	354	371	53,912	300	13,176	1,261	1,204	0	182,72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나. 우리 주요 투자기업 및 업종, 지역별 투자동향

투자진출업종은 도소매업(63.7%)과 제조업(32.8%)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2.0%), 숙박음식업(1.2%) 등이며,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삼성전자(판매), 기아 자동차(판매), LG 전자(판매), 대우전자(판매), 대우자동차(생산), 한국타이어(지사) 등이다. 주요 투자지역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순이다.

한국의 대 스페인 주요 투자기업 현황

투자기업명	현지법인명	업종	신고금액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IBERIA, S.A.	가전, 정보통신기기	60,891
대우전자(제조)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ESPANA S.A.	냉장고	43,800
대우자동차	CHEVROLET ESPANA, S.A	자동차	38,789
LG 전자	LG ELECTRONICS ESPANA S.A.	가전, 정보통신기기	16,634
대우전자(판매)	DAEWOO ELECTRONICS ESPANA S.A.	전기, 전자제품	13,550
국제상사	KUKJE-CHUN NAM S.A.	양모피	7,500
대아	DAEA-SELONA.S.A.	올림픽휘장품	1,800
제너시스	EUROPA BBQ ESPANA S.A.	Sea Food	1,278
MULTIPROSUR	MULTI-PROSUR, S. A	어업	936
(주)세라젬	CERAGEM SPAIN S.L.	의료기	451
한진해운	HANJIN SHIPPING (SPAIN) CO., LT.D	화물운송	120
한국타이어	HANKOOK ESPANA S.A.	타이어	6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법 요약

스페인은 법령 Royal Decree 664/1999 로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였으며, 동 법령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투자 후 사후신고로 가능하다.

관련법령에서는 3,005,060 유로 이하 의 외국인 투자(Tax Heaven 국가로부터 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1) 조세천국(Tax Heaven)으로부터 투자, (2)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해외투자 및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나. 정부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스페인의 산업진흥 정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산업의 전략적인 발전, 특정 지역의 개발, 중소기업의 지원, R & D, 고용증진 등이 그것들이다.

정부의 지원은 금융 지원과 비 금융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금융지원에는 보조금, 정부대출, 및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지분참여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Direct incentive)와 세금감면 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 (Indirect incentive)가 있다.

비 금융 지원에는 기술, 경영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에서부터 특별 고용계약 계획, 산업용 부동산 취득 및 회사합병 계획에 대한 인센티브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1) 스페인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

스페인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은 지역개발을 위한 것인데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Royal Decree 에 의하여 지역에 따라 금융지원과 비 금융 지원의 내역이 달라진다.

지역구분은 4가지의 형태(I, II, III 및 IV) 인데 이 지역구분에 따라 투자승인금액의 25 ~ 75 % 가 Non-repayable grants, Interest subsidies on loans granted by finance companies, Subsidies on loan repayments, Rebate of up to 50 % of employ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기타 고용훈련 인센티브 와 수출 인센티브가 있다.

2) 민간 및 공공단체

민간 및 공공단체도 금융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별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체명	지원내역
Advisory Commissio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AICYT)	Long-term interest-free loan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for Research and Technical Innovation (CDTI)	Financial subsidies for innovative technological projects, the manufacture of new products and development of new industrial projects
Public company for the promotion of innovation (ENISA)	Limited investment in capital-risk companies. Promotes foreign investment through its offices abroad

3) 지역별 인센티브

지역별 EU 보조금 상한선

구 분	해 당 지 역	보조금 상한
1지역(ObjetivoI) (총 10개 주) 성격: 저개발빈곤 지역	갈리시아(Galicia)	고정자산 투자 액의 40%
	아스투리아(Asturia)	“ 40%
	발렌시아(Com.Valenciana)	카스테욘지방: “ 35%
		발렌시아지방: “ 35%
		알리칸테지방: “ 40%
	카스티야-레온(Castilla-Leon)	“ 30~40%
	카스티야-라만차(Castilla-La Mancha)	“ 40%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 50%
	안달루시아(Andalucia)	“ 50%
	무르시아(Reg. De Murcia)	“ 40%
	멜리아(Ceuta y Melia)	“ 40%
2지역 (ObjetivoII) (총 7개 주) 성격: 산업발전 및 지역 개발도가 높은 지역	카나리아(Canarias)	“ 50%
	마드리드(Madrid)	“ 0~20%
	카타루냐(Cataluna)	“ 0~20%
	빠이스 바스코(Pais Vasco)	“ 20%
	나바라 (Navarra)	“ 20%
	리오하 (La Rioja)	“ 20%
	아라곤 (Aragon)	“ 20~30%
3지역 (ObjetivoIII) 성격: 2지역에 속하는 州의 일부 빈곤 지역	발레아레스 (Balears)	“ 0~20%
	예)마드리드의 일부 빈곤 지역	지역에 따라 크게 상이

주 : 상기 보조금은 상한선을 의미하므로 1지역의 경우도 반드시 상한선인 40%를 지원 받는다는 보장이 없음. 투자규모,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해 양자간 협상을 통해 지원 폭이 달라짐. 칸타브리아 州의 경우 1지역에서 2지역으로 전환 중으로 2006년까지 보조금 상한선 이 20%로 낮아짐.(2000년 40%, 2001년 35%, 2002년 30%, 2003년 25%, 2004년 20%, 2004년-2006년 20%로 고정)

4) EU 인센티브

E. U. 는 역내국가 회사들의 고용증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조금, 자금대출 및 지원 등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3개의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and Orientation Fund
- European Social Fund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의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는 보조금, 융자,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지방 정부를 통해 해외투자기업에 지원된다. EU 차원의 공여인센티브는 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및 스페인 신용청(ICO; Spanish Official Credit Institute)을 통해 지원된다. EU 공여 인센티브는 EU 역내국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거나 실업률이 높은 저개발지역 및 철강, 조선 등 구조조정 산업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다. 은행 및 금융기관

스페인의 은행 및 금융기관은 Official credit institutions, Private banks, Savings banks, Credit Cooperatives,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Official credit institutions은 정부의 정책금융기구로서 현재 6 개가 있는데 1991년 5월 3일에 공포된 Royal Decree에 의하여 "Corporacion Bancaria de Espana(스페인 은행 공사)" 를 지주회사로 하여 통합되었으며 6개의 정책은행은 다음과 같다.

- Banco de Credito Industrial (산업은행)
- Banco de Credito Agricola (농업은행)
- Banco de Credito Local (지방은행)
- Banco Hipotecario de Espana (부동산은행)
- Caja Postal de Ahorros (채신금고)
- Banco Exterior de Espana (외환은행)

Private banks는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말하며 스페인 금융체계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은행은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BBVA)와 Banco de Santander 등이 있다. Savings banks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을 말하며 " Cajas de Ahorro "로 표시된다.

당초에는 주택구입자나 공공건물 건축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업은행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Credit Cooperatives 는 신용금고를 의미한다.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거나 예금을 수신한다.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는 Discount houses, Financing companies, Leasing companies 등을 의미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지사(SUCURSAL)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최소자본금 불입 의무가 없는 것이 다르다. 즉, 법률사무소 선임 => 설립신고서 작성 => 투자승인신청 => 외국인 투자등록서 입수 => 스페인 비거주자 확인증 발급 => 미등록 상호증명서 발급 => 납세자 번호 신청 및 세금납부 => 현지 고용원 채용 및 사회 보장제 등록의 순이다.

나. 단순사무소(OFICINA DE REPRESENTACION)

현지 단순 사무소(OFICINA DE REPRESENTACION)는 일종의 지사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사의 경우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단순사무소는 스페인 내 직접 판매 행위는 할 수 없고 마케팅 및 판촉 등 영업에 부수적인 행위만이 허용된다.

다. 현지법인

스페인의 법인으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 S.A.), 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 S.L.), 합명회사(Sociedad Regular Colectiva : S.R.C.),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 S.Com)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회사(S.A.)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서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 즉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 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S.L.)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써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다.

합명회사(S.R.C.)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인데,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합자회사(S.Com)는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조직되는 기업의 형태이다. 합명회사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경영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담당하며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받는다.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 60,101유로, 유한회사는 3,005유로, 합자회사 60,101유로이며, 합명회사는 최소자본금이 없다.

외국기업의 진출형태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지사는 상법상의 취급은 다르지만 세법상에서는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다. 연락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상법,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은 없다.

스페인에 현지법인 설립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Ventanilla Única Empresarial 에서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정부기관으로 회사설립 상담 및 회사설립 관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http://www.vue.es>)에는 회사 설립 관련 각종의 자료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다. 스페인 국내에 23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사무소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사무실의 전화는 통화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는 www.investin-spain.org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스페인 내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전반 적인 자료를 스페인어 및 영어로 얻을 수 있다.

- 주소 : Plaza de la Independencia 1, 28001, Madrid, Spain
- 전화 : 902-181-191 / 902-100-096
- 팩스 : 91-577-4564
- 이메일 : Madrid@ventanillasempresarial.org
- 홈페이지 : <http://www.vue.es>
-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2시

일반적인 현지법인 설립절차

- 법률사무소(Gestoria) 선임(선택사항임): 서류작성, 공증, 수속대행, 법률조언
- 회사 설립 신고서(Escritura de Constitución) 작성 및 공증
- 투자신고(필요 시) - “투자허가” 부분 참조
- 외국인 투자 등록서 (Declaración de Inversión al Registro de Inversiones Extranjeros)
입수: 경제부
- 스페인 비거주자 확인증 발급: 한국소재 모기업의 설립등기 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스페인 내무부에서 확인증 발급.
- 미등록 상호 증명서 발급 : 스페인 중앙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Central).
유효기간 2개월
- 설립자본금 불입 증명서 발급 : 은행 (유한회사의 경우: 3,005유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25%로서 2개월 이상 잔고 증명)

라. 회사 설립 구비 서류

외국인투자자의 비거주자 증명서, 미등록 상호증명서, 설립 자본금 불입 증명서, 외국인 투자등록서 회사 설립 신고서에 서명하고 상기 구비서류를 공증 받는다. 공증인은 제반 서류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제출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마. 투자허가

1) 단독투자

단독투자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취하면 된다.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나 최근 유한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공동투자

한편 스페인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과 공동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위험의 분담과 자원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합작투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페인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태는 아래와 같다.

□ 일시적 기업연합(Union Temporal de Empresas: UTE)

스페인 국내법에 따르면 일시적 기업연합은 특정 또는 불특정 기간에 특정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엔지니어링 또는 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매우 많이 활용된다. UTE는 법인이 아니며 따라서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단지 공증 후 경제부와 재무부 UTE 대장에 등재되며 그 외 상업등기소에 등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같이 문서보관이나 회계요건 등은 준수해야 한다.

□ 경제적 이익그룹(Agrupacion de Interes Economico: EIG)

EIG는 독립된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 하나의 법인체인 점에서 UTE와는 차이가 있다. EIG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의 성격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또한 그룹 구성원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설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조합이나 협회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정보관리와 행정서비스 등을 위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 스페인 기업과 참여회계 협정(Contrato de cuenta en participacion) 체결

관리기업(Manager-participant)이 수행하는 특정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투자기업(Investor-participant)이 관리기업에게 자금 또는 기타 다른 목적물을 제공하고 서로 재정적 협력을 이루는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협정은 특별한 법률적 형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공증 또는 3자 보증 등을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 스페인 회사와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스페인의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자본의 공동 출자를 통해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스페인 기업과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통계약도 검토할 수 있는데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체결, 소울 에이전트 운영, 커미션 에이전트 운영, 프랜차이즈 등의 형태가 있다.

■ 타당성조사

스페인 투자 또는 시장 진출 시에는 교통 통신 등 인프라, 원부자재 조달문제, 거래선 및 소비층 구축하는 문제, 전문 및 숙련인력 조달하는 문제, 사무실 및 공장 입지 선정, 투자 제한 분야 여부, 진출형태(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 선정, 과실송금, 조세제도 파악, 투자인센티브제도 확인, 주재원 비자 취득문제, 환율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의 꾸준한 상승과 고물가에 따른 투자비용 증대, 중동구권의 EU 가입에 따른 기업의 동구 이전 등으로 투자 매력도는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 4 천 3 백만 명의 내수시장과 연간 5 천만 명의 관광객, 그리고 거대 EU 시장에 인접해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투자진출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는 무한하다.

그 동안 낙후된 산업분야에서 급속한 수요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이나 스페인 대비 경쟁력 우위의 첨단 기술품목 진출을 위한 단독 또는 합작투자 진출도 가능하며 인근 EU, 북아프리카는 물론 특수한 정치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남미를 겨냥한 우회 진출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스페인은 고임금에 높은 수수료 등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단독 투자를 계획하는 것은 투자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처음 단계에는 현지 기업과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소울 에이전트, 커미션 에이전트 계약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프로젝트 참여나 입찰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일시적 기업연합 (UTE)을 통해 공동 참가하거나 컨트렉터 대상의 2 차 벤더로 공급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대체로 현지 제도와 관행상 외국기업의 직접 참가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신 재생 에너지, 환경, 의료 등 스페인이 첨단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현지 협력 가능 기업을 목표로 삼고 기술개발 공동투자 또는 양사간 경쟁력 있는 상품의 공동 판매 유통 등 제휴를 통한 진출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스페인 내 등록이 다른 EU 국보다 다소 수월한 점이 있어 스페인을 거점으로 타 유럽국가로 진출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스페인 기업의 한국진출 형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동종업종의 유망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이는 투자대상기업을 통해 특허 하에 자사상품의 생산 공급이 가능할뿐더러 기존기업이 보유한 거래선에 대한 접근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스페인 기업들의 대다수는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파트너와의 신뢰도와 친밀도 구축이 필수적이다. 몇 번의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일단 신뢰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서 상호 윈윈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한다면 의외로 공공 프로젝트 개발이나 추진 시 전폭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신중한 대신 한번 결정된 프로젝트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하며 상대 파트너 역시 이에 맞게 대응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기업 측은 초기 프로젝트 성사 시 까지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나중에 가면 사전준비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일이 지체되어 파트너의 신뢰를 잃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스페인의 산업분야별 동향과 진출유망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기반을 구축한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할 경우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비용과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지역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어 사전에 동종 관련업종이 많이 소재한 지역이 어디인지 검토하여 전문인력 확보 또는 원부자재 조달 등이 용이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곳을 접촉하여 최상의 인센티브를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투자 목적과 계획에 따라 최적의 진출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진출방법의 결정과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페인에서는 노동비자와 체류비자 취득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파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주재원 발령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설립절차를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변호사에 완전 일임하기 보다는 현지 한국인 에이전트를 두거나 한국인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설립 후 현지채용 직원 또는 자문변호사로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

■ 입지선정

스페인에는 전국에 약 180여 개의 공단(POLIGONO INDUSTRIAL)이 소재하며, 외국업체 입주 제한은 전혀 없다. 생산기지도 많지만 물류기지의 성격을 가진 공단도 많다. 전국 각 지역에 다수의 크고 작은 공단이 산재하고 있어 입지조건이나 전후방 연관산업 등을 고려한 최적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 주변 주요 공단은 아래와 같다.

- 마드리드 : 알코벤다스, 코스라다, 푸엔라브라다 등
- 바르셀로나 : 리에라데칼데스, 소나프랑카, 칸하르디 등
- 발렌시아 : 후엔테데하로 등

이외에도 스페인 전국 8개 지역에 과학기술공원(TECHNOLOGY PARK)이 소재, 국내외 첨단기술 업체를 유치하고 있다.

□ 스페인의 주요 공단

스페인은 높은 실업률과 자체 산업수준이 유럽열강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인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스페인 산업관광무역부의 무역투자총국이 투자유치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스페인에 투자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하면 이들의 투자기관이나 담당부서가 모든 민원 처리를 대행하므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의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개발기관 등에서는 스페인 및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과 생산성 제고를 기하는 한편, 환경 보호 등 관리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스페인 전국에는 180여 개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일반공단 이외에 스페인 업체의 기술개발 향상과 외국의 첨단기술업체 유치를 위해 전국에 8개의 과학기술공원(PARQUE TECNOLÓGICO)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을 위한 공단은 없으며, 어느 공단이나 외국 업체 입주는 자유롭다.

- 1) PARQUE TECNOLÓGICO DE VALLES
- 2) POLIGONO INDUSTRIAL DE RIERA DE CALDES
- 3) POLIGONO INDUSTRIAL DE SAGUNTO
- 4) POLIGONO INDUSTRIAL DE JUNDIZ
- 5) PARQUE TECNOLÓGICO DE ANDALUCIAG

1) PARQUE TECNOLÓGICO DE VALLES

스페인 주요공업지역인 카탈루냐주에 속하는 한편, 최대 항구인 바르셀로나에 인접, 최적의 공업요건 보유한 공단으로써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인력 확보 용이하다.

- 소재지 : 스페인 바르셀로나
- 부지면적 : 585,000m²
- 조성주체 : 카탈루냐 자치주 정부 및 투자진흥청 (CIEDM)
- 공단성격 :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첨단산업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부지확보 및 조성은 주정부, 입주업체 유치 및 운영은 CIDEM이 담당
- 입주비용 : 분양가격 : 150유로/m²
- 부지형태 : 2,000m², 1,000m² (2종)
- 입주가능시기 : 계약 후 최대 7개월 내 정상가동 가능
- 교통
 - 항만 : 바르셀로나항에서 25km
 - 철도 : RENFE 바르셀로나역에서 20km 내외
 - 공항 :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20km
 - 도로 : 도로 N-11(마드리드-바르셀로나-프랑스), N-340(발렌시아)등과 직접 연결

- 전 력 : 전력량 충부, 단지내 각 동 전력공급장치 완비
- 용 수 : 단지내 식수, 공업용수 공급시스템 완비
- 통 신 : 단지내 전화 등 통신시스템 완비
- 인력조달 : 바르셀로나 474만명
- 임금수준 : 월평균임금(카탈루냐주) : 1,270유로

- 외국기업 입주현황 : 21개사(총업체수 92개)
 - 미국 6, 일본,프랑스 각3, 독일,영국 각2

- 한국입주 기업 : 명단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상기 첨단기술 보유업체 우대
- 우대조치 : 입주 1차년도에 한하여 임차료의 36%를 할인(순수 신규 설립 기업에 한함)
투자내용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조금 또는 조세혜택 수혜 가능

- 연락처
 - 업체명 : CIDEM (CENTRE D'INFORMACIO I DESENVOLUPAMENT EMPRESARIAL)
 - 주 소 : AVDA. DIAGONAL, 449, 4A PLANTA
 - 전 화 : (34-3)405 1104
 - 팩 스 : (34-3)419 8823

2) POLIGONO INDUSTRIAL DE RIERA DE CALDES

스페인 주요공업지역인 카탈루냐주에 속하는 한편, 최대 항구인 바르셀로나에 인접, 최적의 공업여건을 갖추고 있는 공단으로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여건 활용 및 숙련 노동력 확보 용이하다.

- 소 재 지 :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우데블레가만스 (PALAU DE PLEGAMANS)
- 부지면적 : 1,432,382m²
- 조성주체 : INCASOL(카탈루냐 주 정부 공공건설 담당기관)
- 공단성격 : 카탈루냐 주정부 소유 (3단계에 걸쳐 공단을 확장, 향후 2-3년 내에 4단계 확장 검토 중)
- 입주비용 : 현재 단지 내 100% 분양완료로 기존업체와의 매매방식만이 가능함.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현 단계 입주불가, 향후 4단계 확장 시 신규부지 입주가능 (입주 신청 시 10% DEPOSIT, 계약 시 잔금지불)

- 교 통
 - 항 만 : 바르셀로나항에서 20km
 - 철 도 : RENFE 사바델역 및 바르셀로나에 인접
 - 공 항 :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20km
 - 도 로 : N-1(마드리드-바르셀로나), A-7(발렌시아-바르셀로나-프랑스)에 인접

- 전 력 : 전력량 충부, 단지내 각 동 전력공급장치 완비
- 용 수 : 단지 내 식수, 공업용수 공급시스템 완비
- 통 신 : 지하 전화 케이블망 매설, 단지 내 각종 전화 연결망 보유
- 인력조달 : 바르셀로나 474만명

- 임금수준 : 월평균임금(카탈루냐주) : 1,240유로
- 외국기업 입주현황: BETTER(독), DRAFTEX(프), KAUTEX(독), SAKATA(일), WURIH(스위스)등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삼성전자 TV, VCR 공장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없음
- 우대조치 : 투자내용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 혜택 수혜가능
- 연락처 :
 - 업체명 : INSTITUT CATALA DEL SOL (INCASOL)
 - 주 소 : D/DORSEGA, 289-6 08008 BARCELONA
 - 전 화 (34-3)237-7900
 - 팩 스 (34-3)218-2650
 - 담당자 MR. SALVADOR MOLINS I BAGARIA

3) POLIGONO INDUSTRIAL DE SAGUNTO

발렌시아에서 가까운 SAGUNTO항에 인접, 교통 및 수송여건이 양호하고 지중해 물동량 증대 추세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 소 재 지 : 스페인 발렌시아
- 부지면적 : 384,605m²
- 조성주체 : INGRUINSA, S. A. (공기업)
- 공단성격 : 중앙정부 소유
- 입주비용 : 75유로/m²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총부지 384,605m²중 104,953m²는 기본양(매각) 구입계약 후 7개월 내 정상가동 가능
- 교 통 :
 - 항 만 : SAGUNTO항 인접
 - 철 도 : 인접한 국철(RENFE) SAGUNTO역과 연결되는 철도망 보유
 - 공 항 : 발렌시아 MANISES 공항에서 28km
 - 도 로 : 발렌시아 23km, 마드리드 352km, 발렌시아 349km, 라고사 30km등과 고속도로로 연결 중해 고속도로(A-7)와 직접 연결됨
- 전 력 : 전력량 총부, 단지내 각 동 전력공급장치 완비
- 용 수 : 단지내 식수, 공업용수 공급시스템 보유
- 통 신 : 지하 전화케이블망 매설, 단지내 각 동마다 전화 CONNECTION망 보유
- 인력조달 : 발렌시아주 219만명
- 임금수준 : 월평균임금(발렌시아주) : 1,045유로
- 외국기업 입주현황 : 1개사(프랑스 SATFER, S.L.), 스페인 업체 13개사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없음
- 우대조치 : 지역인센티브제도 등에 따른 보조금수혜가능 투자액에 대한 은행융자 가능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INGRUINSA, S.A.
 - 주 소 : C/LIBERTAD, 61, ENTRESUELO. NO. 4-546520 PUERTO DE SAGUNTO, VALENCIA, SPAIN
 - 전 화 : (34-6)268-0540
 - 팩 스 : (34-6)267-8013
 - 담당자 : Mr.FRANCISCO FORES

4) POLIGONO INDUSTRIAL DE JUNDIZ

빠이스 바스코주의 기계, 철강, 화학 등 발달된 중화학공업 연관산업 및 숙련된 노동력 활용 가능한 공단이다.

- 소 재 지 : 스페인 비토리아
- 부지면적 : 3,760,000m²
- 조성주체 : 비토리아-가스테이스 시청
- 공단성격 :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전용부지 배정 외국기업 참가제한 없음.
- 입주비용 : 최소면적 : 1,500m²
- 분양가격 : TYPE I 40유로/m², TYPE II 36유로/m²
- 건물고도제한 : 10-15m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계약즉시 입주가능

- 교 통
 - 항만 : 빌바오 항구에서 70km
 - 철도 : RENFE 화물선 JUNDIZ역에서 0km
 - 공항 : 국내선 FPRONDA공항에서 3km, 국제선 SONDIDA공항에서 70km
 - 도로 : N-1(MADRID-IRUN)에서 1km

- 전 력 : 전력량 풍부, 단지내 각 동 전력공급장치 완비
- 용 수 : 단지내 식수, 공업용수 공급시스템 보유
- 통 신 : 지하 전화케이블망 보유, 단지내 각 동마다 전화 CONNECTION망 보유
- 인력조달 : 비토리아 20만명(비스카야 전체 116만)
- 임금수준 : 월평균임금 : 1,475유로
- 외국기업 입주현황 : ERCROS, FUNDIX, SOLAC, EXERCICLE, URSSA사 등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한없음
- 우대조치 : 분양가격의 5% 계약 시, 1개월 후 45%, 4개월 후 50% 분할 지불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AGENCIA MUNICIPAL DE DESARROLLO ECONOMICO Y EMPLEO
 - 주 소 : C/FRAY ZACARIAS MARTINEZ, S/N, 01001 VITORIAGASTEIZ, SPAIN
 - 전 화 : (34-45)161 100
 - 팩 스 : (34-45)161 533
 - 담당자 : MR. EDURARDO ARRIOLABENGOA

5) PARQUE TECNOLOGICO DE ANDALUCIA

양호한 지역 인센티브(50%) 혜택 수혜가 가능하며 과학기술 단지 내 및 인근 말라가 등 대도시 기술인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단지이다.

- 소 재 지 : 스페인 말라가
- 부지면적 : 1,685,000m²
- 조성주체 : 안달루시아 주정부, 투자진흥청(IFA), 토지 개발청(EPSA)
- 공단성격 : 텔레콤, 전자, 산업용 로봇, 신소재, 사무자동화기기, 레이저, 대체 에너지 등 분야 첨단기술업체 모집
- 입주비용 : 분양가격 : 80-145유로/m² (부지용도에 따라 상이함)
- 관리비용 : 2.1유로/m²
- 조성현황 : 총 건설면적 412,667m²

- 교 통
 - 항 만 : 말라가 항구에서 13km, 알헤시라스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 철 도 : 말라가 철도역에서 11km
 - 공 항 : 말라가 국제공항(유럽 20여 개 도시 연결)에서 15분
 - 도 로 : 마드리드 행 N-331, 알헤시라스 등 해안 고속도로행 N-340 경유

- 전 력 : 단지내 SEVILLANA 전력회사 분소 위치, 전력량 풍부
- 용 수 : 인근 TOMILLA 저수지 및 정화시설 보유, 식수 및 공업용수 공급시스템 보유
- 통 신 : 지하 전화케이블망 매설, 단지 내 각종 전화 연결망 보유
- 인력조달 : 말라가 121만 명
- 임금수준 : 월평균임금(안달루시아주) : 1,150유로
- 외국기업 입주현황 : ALCATEL, HUGHES MICROELECTRONICS, CETECOM, BIC-EURONOVA등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상기 첨단산업 기술업체 모집 우대
- 우대조치 : 지역인센티브제도에 의거 투자액의 일정비율 보조금 수혜 가능 동 공단 지원법에 의거 주정부로부터 투자액의 일정 비율 보조금 수혜가능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PARQUE TECNOLOGICO DE ANDALUCIA
 - 주 소 : D/MARIA CURIE, S/N 29590 CAMPANILLA (MALAGA)
 - 전 화 : (34-5)261-9114
 - 팩 스 : (34-6)261-9117
 - 담당자 : MR. JOSE ANTONIO GARCIA

■ 공장설립

스페인에서는 투자금액이 3,005,06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무역투자총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토지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 7%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매도자가 법인 또는 개인부동산개발업자인 경우 건축할 수 있는 부지 이전 또는 건물 최초 양도 시 16%의 부가가치세(빌딩이 거주목적인 경우 7%)와 보통 1%의 인지세를 낸다. (인지 세율은 지자체 별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또는 부차적, 최종적 건물 양도 시 매수자가 기업인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계약이 완료되면 이를 자산대장(Official Property Register)에 등재해야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자산대장 등록 수수료율은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이 적용되는데 6,010유로까지는 0.4%가 적용되고 601,012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02%가 적용된다. 지방세는 취득시점과 매도시점의 토지가격 상승 분에 따라 매겨지는데 매도자가 부담한다. 세액은 다른 요소보다는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며 취득시점 이후 토지가격에 따라 산정된다.

■ 투자관련 정부기관

92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제 폐지로 일반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감독기관은 없으며 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관련업무는 경제재무부에서 투자정책 수립을 산업무역관광부의 무역투자총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각 지방정부 및 지방개발기관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기관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정책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경제재무부 "무역 정책 해외 투자국"
- 역 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연락처
 - 주 소 : Paseo de Castellana, 162, 28046, Madrid, Spain
 - 전 화 : (34-91)583-7400
 - 팩 스 : (34-91)349-3562

2) 투자유치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산업 무역 관광부 무역투자 총국(Direcion Gernerale de Comercio e Inversiones)
- 역 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투자유치 홍보
 -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
 - 격월간 "Invest News Spain" 발간
 - 홈페이지 운영 www.investinspain.org
 - 각종 관련 행사 개최
 -

○ 연락처

- 주 소: Paseo de la Castellana, 162 – Madrid 28046 Spain
- 전 화 : 34 91 349 36 16
- 팩 스 : 34 91 349 35 62
- E-mail : sgiex@mcx.es

3) 각 자치주 별 투자유치 전담기관

○ 기 능 :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 등 업무수행

○ 수행업무내역

- 지역 내 해외투자업체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세미나
- 개최, 투자 희망업체 투자조사 지원, 해당지역 투자정보 제공
- 과학기술공원(Technology Park)내 업체유치활동
- 산업공단 개발 및 조성
- 물류현대화 사업
- 지역산업개발프로그램
- 기업 국제화 지원
-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중소기업 종합금융서비스

○ 안달루시아(Andalucia)

- 기관명 : 안달루시아개발청(IFA : Instituto de Fomento de Andalucia)
- 주 소 : C/Torneo, 26 41002 Sevilla, Spain
- 전 화 : (34-95)490-0016
- 팩 스 : (34-9)490-6300

○ 아라곤(Aragon)

- 기관명 : 아라곤개발청(IAF : Instituto Aragones de Fomento)
- 주 소 : C/Tte. Coronel Valenzuela, 9 50004 Zaragoza, Spain
- 전 화 : (34-976)70-2101
- 팩 스 : (34-976)70-2103

○ 아스투리아스(Asturias)

- 기관명 : 지방개발청(IFR : Instituto de Fomento Regional)
- 주 소 : Parque Tecnologico de Asturias 33420 Llanera (Asturias), Spain
- 전 화 : (34-985)26-0068
- 팩 스 : (34-985)26-4455

○ 발레아레스군도(Balearic Islands)

- 기관명 : 발레아레스 산업진흥소 (Ofinica de Promocion Industrial)
- 주 소 : C/Foners, 10, 07006 Palma de Mallorca, Spain
- 전 화 : (34-971)17-6133/4
- 팩 스 : (34-971)17-6154

- 빠이스바스코(Pais Vasco)
 - 기관명: 산업진흥재편공사(SPRI: Sociedad para la Promocion y Reconversion Industrial S.A.)
 - 주 소 : C/Gran Via, 35-3rd fl. 48009 Bilbao, Spain
 - 전 화 : (34-94)479-7700
 - 팩 스 : (34-94)479-7022

- 카나리군도(Canary Islands)
 - 기관명 : 공업에너지 고문 부위원회(Vice-Consejeria de Industria y Energia)
 - 주 소 : Edificio Usos Multiples - 8th fl. 35071 Las Palmas, Spain
 - 전 화 : (34-928)37-1612
 - 팩 스 : (34-928)38-4070/38-3764

- 칸타브리아(Cantabria)
 - 기관명 : 칸타브리아지역개발공사(SODERCAN : Sociedad para el. Desarrollo Regional de Cantabria)
 - 주 소 : Avda. Los Infantes, 32, Quinta Labat, 39005 Santander, Spain
 - 전 화 : (34-942)29-0003
 - 팩 스 : (34-942)27-3240

- 카스티야-레온(Castilla-Leon)
 - 기관명 : 경제개발공사(Agencia de Desarrollo Economico)
 - 주 소 : C/Duque de la Victoria, 23 47014 Valladolid, Spain
 - 전 화 : (34-983)41-1420
 - 팩 스 : (34-925)41-4970

- 카스티야-라만차(Castilla-La Mancha)
 - 기관명 : 산업발전국(Direccion General de Desarrollo Industrial)
 - 주 소 : Plaza Zocodover 7, 2nd Fl. 45071 Toledo, Spain
 - 전 화 : (34-925)26-9800
 - 팩 스 : (34-925)26-7873

- 카탈루냐 (Cataluna)
 - 기관명 : 기업 정보개발 센터(CIDEM: Centro de Informacion y Desarrollo Empresarial)
 - 주 소 : C/Provenza 339, 08037 Barcelona, Spain
 - 전 화 : (34-93)476-7200
 - 팩 스 : (34-93)476-7300

-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 기관명 : 엑스트레마두라 산업개발공사 (SOFIEX : Sociedad de Fomento Industrial de Extremadura)
 - 주 소 : C/Moreno de Vargas, 2 06800 Merida, Spain
 - 전 화 : (34-924)31-9159/31-9179
 - 팩 스 : (34-924)31-9212

- 갈리시아(Galicia)
 - 기관명 : 갈리시아 경제 진흥청(IGAPE : Instituto Gallego de Promocion Economica)
 - 주 소 : C/Fray Rosendo Salvado, 16, bajo 15701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 전 화 : (34-981)31-54-1150/60
 - 팩 스 : (34-981)31-59-0467
- 리오하(La Rioja)
 - 기관명 : 개발청(Servicio de Fomento)
 - 주 소 : Edificio Simeon C/Portales, 46, 1st fl. 26071, Logrono, Spain
 - 전 화 : (34-941)29-1100 exit 5027/5030 / 팩 스 : (34-941)29-1201
- 마드리드(Madrid)
 - 기관명 : 마드리드경제개발청(IMADE : Instituto Madrilenio de Desarrollo Economico)
 - 주 소 : Gran Via, 42 28013 Madrid, Spain
 - 전 화 : (34-91)580-1568/2517
 - 팩 스 : (34-91)580-1972
- 무르시아(Murcia)
 - 기관명 : 무르시아지방개발청(Instituto de Fomento de la Region de Murcia)
 - 주 소 : C/Garcia Alix, 17 - Bajo 3005 Murcia, Spain
 - 전 화 : (34-968)36-2800
 - 팩 스 : (34-968)29-9548
- 나바라(Navarra)
 - 기관명 : 나바라개발공사(SODENA : Sociedad de Desarrollo de Navarra)
 - 주 소 : Avda. Carlos III, 36-1D 31003, Pamplona, Spain
 - 전 화 : (34-948)23-0400
 - 팩 스 : (34-948)15-2614
- 발렌시아(Valencia)
 - 기관명 : 발렌시아수출청(IVEX : Instituto Valenciano de la Exportacion)
 - 주 소 : Pl. America, 2-7 46004 Valencia, Spain
 - 전 화 : (34-96)395-2001
 - 팩 스 : (34-96)395-2879

■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사설립 및 투자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스페인 내 주요 컨설팅 사는 아래와 같다.

1) DELOITTE Madrid

- Plaza de Pablo Ruiz Picasso s/n
- Torre Picasso 28020 Madrid Madrid SPAIN
- Número de Teléfono: 00 34 91 514 50 00
- Número de Fax: 00 34 91 514 51 80
- www.deloitte.es

2) PRICEWATERHOUSE COOPERS

- Senior Partner's Office – Spain Firm
- Edificio Marañón Paseo de la Castellana, 53 28046 Madrid Spain
- Telephone: [34] (91) 568 44 00
- Telecopier: [34] (91) 568 55 90
- www.pwcglobal.com

3) ERNST & YOUNG MADRID

- Plaza Pablo Ruiz Picasso, 1
- Torre Picasso
- 28020 Madrid
- Tel. 915 727 200 – 915 727 580 – 915 727 370
- Fax 915 727 238 – 915 727 270 – 915 727 400

4) ERNST & YOUNG BARCELONA

- Avda. de Sarrià, 102-106 Edificio Sarrià Fórum 08017 Barcelona
- Tel. 933 663 700
- Fax 934 053 784 – 934 397 891
- www.ey.com

5) KPMG (www.kpmg.es) Madrid

- Paseo de la Castellana, 95 Edificio Torre Europa 28046 Madrid
- Tel. +34 91 456 34 00
- Fax. +34 91 555 01 32

6) KPMG (www.kpmg.es) Barcelona

- Avda. Diagonal, 682 Edifici La Porta de Barcelona 08034 Barcelona
- Tel. +34 93 253 29 00
- Fax. +34 93 280 49 16

7) CONFEAUDITORES (www.confeauditores.com) Madrid

- C/ del Factor, 14 28013 Madrid
- Teléfono: 91 548 45 00
- Fax: 91 548 30 27
- confeaud@confeauditores.com

8) RSM AUDIHISPANA (www.audihispana.com) Madrid

- C/ Velázquez, 24 28001 – Madrid – Spain
- Telf: 91 576 39 99
- Fax: 91 577 48 32

9) BDO AUDIBERIA (www.bdo.es) Madrid

- C/ Rafael Calvo, 18 28010 – Madrid – Spain
- Telf: 91 436 41 90
- Fax: 91 436 41 92

10) AUREN (www.auren.com) Madrid

- José Lázaro Galdiano, 4 5ª planta 28036 MADRID
- Tel: +34 912 037 400
- Fax: +34 912 037 470
- mad@mad.auren.es

11) AUREN (www.auren.com) Barcelona

- C/Mallorca, 260 átic 08008 BARCELONA
- Tel: +34 93 215 59 89
- Fax: +34 93 487 28 76
- bcn@bcn.auren.es

12) GASSO AUDITORES (www.gassomri.com) Barcelona

- Mestre Nicolau, 19 2a. planta 08021 Barcelona
- Tel. 34 93 418 47 47
- Fax 34 93 211 11 66
- info@gassomri.com

13) GASSO AUDITORES (www.gassomri.com) Madrid

- Padre Damián, 5 1º 28036 Madrid
- Tel: 914 57 02 39
- Fax: 914 57 18 49
- madrid@gassomri.com

14) MAZARS (www.mazars.es) Barcelona

- Avda. Diagonal 609, planta 10 08028 Barcelona – Sapin
- Telf: +34 934 050 855
- Fax: +34 934 050 770

15) MAZARS (www.mazars.es) Madrid

- Claudio Coello 124, Planta 2 28006 Madrid
- Telf: +34 915 624 030
- Fax: + 34 915 610 224

16) 현지 한국인 변호사 (투자진출 컨설팅 및 업무 대행)

- 장호성 변호사
- 전화번호 : 34) 928 266 432
- 휴대전화 : 34) 659 394 539
- 이메일 : changws@telefonra.net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지대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는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자유무역지대관리소(Consorci Zona Franca de Barcelona)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el-con.sorci.com/index_ingl.htm 참조가 가능하다.

이외 카나리아(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세우따(Ceuta), 멜리야(Melilla) 등이 부가세 면제 등 스페인 본토와는 다른 조세체계로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에 소재한 세우따, 멜리야의 경우는 모로코, 알제리 등으로 재수출을 위한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지역별 투자여건

스페인은 지방분권이 강해 각 지자체 별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하기는 각 지자체 별 투자유치기관이다.

□ 각 자치주 별 투자유치 전담기관

- 기 능 :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 등 업무수행
- 수행업무내역
 - 지역 내 해외투자업체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세미나
 - 개최, 투자 희망업체 투자조사 지원, 해당지역 투자정보 제공
 - 과학기술공원(Technology Park)내 업체유치활동
 - 산업공단 개발 및 조성
 - 물류현대화 사업
 - 지역산업개발프로그램
 - 기업 국제화 지원
 -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중소기업 종합금융서비스
- 안달루시아(Andalucia)
 - 기관명 : 안달루시아개발청(IFA : Instituto de Fomento de Andalucia)
 - 주 소 : C/Torneo, 26 41002 Sevilla, Spain
 - 전 화 : (34-95)490-0016
 - 팩 스 : (34-9)490-6300

- 아라곤(Aragon)
 - 기관명 : 아라곤개발청(IAF : Instituto Aragones de Fomento)
 - 주 소 : C/Tte. Coronel Valenzuela, 9 50004 Zaragoza, Spain
 - 전 화 : (34-976)70-2101
 - 팩 스 : (34-976)70-2103
- 아스투리아스(Asturias)
 - 기관명 : 지방개발청(IFR : Instituto de Fomento Regional)
 - 주 소 : Parque Tecnologico de Asturias 33420 Llanera (Asturias), Spain
 - 전 화 : (34-985)26-0068
 - 팩 스 : (34-985)26-4455
- 발레아레스군도(Balearic Islands)
 - 기관명 : 발레아레스 산업진흥소 (Ofinica de Promocion Industrial)
 - 주 소 : C/Foners, 10, 07006 Palma de Mallorca, Spain
 - 전 화 : (34-971)17-6133/4
 - 팩 스 : (34-971)17-6154
- 빠이스바스코(Pais Vasco)
 - 기관명 : 산업진흥재편공사(SPRI : Sociedad para la Promocion y Reconversion Industrial S.A.)
 - 주 소 : C/Gran Via, 35-3rd fl. 48009 Bilbao, Spain
 - 전 화 : (34-94)479-7700
 - 팩 스 : (34-94)479-7022
- 카나리군도(Canary Islands)
 - 기관명 : 공업에너지 고문 부위원회(Vice-Consejeria de Industria y Energia)
 - 주 소 : Edificio Usos Multiples - 8th fl. 35071 Las Palmas, Spain
 - 전 화 : (34-928)37-1612
 - 팩 스 : (34-928)38-4070/38-3764
- 칸타브리아(Cantabria)
 - 기관명 : 칸타브리아지역개발공사(SODERCAN : Sociedad para el. Desarrollo Regional de Cantabria)
 - 주 소 : Avda. Los Infantes, 32, Quinta Labat, 39005 Santander, Spain
 - 전 화 : (34-942)29-0003
 - 팩 스 : (34-942)27-3240
- 카스티야-레온(Castilla-Leon)
 - 기관명 : 경제개발공사(Agencia de Desarrollo Economico)
 - 주 소 : C/Duque de la Victoria, 23 47014 Valladolid, Spain
 - 전 화 : (34-983)41-1420
 - 팩 스 : (34-925)41-4970
- 카스티야-라만차(Castilla-La Mancha)
 - 기관명 : 산업발전국(Direccion General de Desarrollo Industrial)
 - 주 소 : Plaza Zocodover 7, 2nd Fl. 45071 Toledo, Spain

- 전 화 : (34-925)26-9800
 - 팩 스 : (34-925)26-7873
- 카탈루냐 (Cataluna)
- 기관명 : 기업 정보개발 센터(CIDEM : Centro de Informacion y Desarrollo Empresarial)
 - 주 소 : C/Provenza 339, 08037 Barcelona, Spain
 - 전 화 : (34-93)476-7200
 - 팩 스 : (34-93)476-7300
- 엑스프레마두라(Extremadura)
- 기관명 : 엑스프레마두라 산업개발공사 (SOFIEX : Sociedad de Fomento Industrial de Extremadura)
 - 주 소 : C/Moreno de Vargas, 2 06800 Merida, Spain
 - 전 화 : (34-924)31-9159/31-9179
 - 팩 스 : (34-924)31-9212
- 갈리시아(Galicia)
- 기관명 : 갈리시아 경제 진흥청(IGAPE : Instituto Gallego de Promocion Economica)
 - 주 소 : C/Fray Rosendo Salvado, 16, bajo 15701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 전 화 : (34-981)31-54-1150/60
 - 팩 스 : (34-981)31-59-0467
- 리오하(La Rioja)
- 기관명 : 개발청(Servicio de Fomento)
 - 주 소 : Edificio Simeon C/Portales, 46, 1st fl. 26071, Logrono, Spain
 - 전 화 : (34-941)29-1100 exit 5027/5030 / 팩 스 : (34-941)29-1201
- 마드리드(Madrid)
- 기관명 : 마드리드경제개발청(IMADE : Instituto Madrilenio de Desarrollo Economico)
 - 주 소 : Gran Via, 42 28013 Madrid, Spain
 - 전 화 : (34-91)580-1568/2517
 - 팩 스 : (34-91)580-1972
- 무르시아(Murcia)
- 기관명 : 무르시아지방개발청(Instituto de Fomento de la Region de Murcia)
 - 주 소 : C/Garcia Alix, 17 - Bajo 3005 Murcia, Spain
 - 전 화 : (34-968)36-2800
 - 팩 스 : (34-968)29-9548
- 나바라(Navarra)
- 기관명 : 나바라개발공사(SODENA : Sociedad de Desarrollo de Navarra)
 - 주 소 : Avda. Carlos III, 36-1D 31003, Pamplona, Spain
 - 전 화 : (34-948)23-0400
 - 팩 스 : (34-948)15-2614

- 발렌시아(Valencia)
 - 기관명 : 발렌시아수출청(IVEX : Instituto Valenciano de la Exportacion)
 - 주 소 : Pl. America, 2-7 46004 Valencia, Spain
 - 전 화 : (34-96)395-2001
 - 팩 스 : (34-96)395-2879

7. 노무관리

가. 노동여건 개관

스페인은 1980년 이후 96년까지 사회당 정부 집권영향으로 근로자 권익우선의 노동관행이 정착, 노동시장이 경직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시계약 증가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94년 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전체 평균으로는 8.5%를 나타내 2005년 대비 감소하였다. 2007년에는 8.1%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은 여타 EU 국가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 시 노동시장 경직성 및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회보장세율은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 고용

스페인에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나 노동부 산하 고용청(INEM), 직업소개소,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단, 노동부 산하 사회보장국 신고, 고용계약 종료 시 각종 노동분쟁 등으로 외국회사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고용계약 자문 등이 추천된다.

2) 근무/휴일/휴가제도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개별 고용계약에 명시되는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휴일, 공휴일은 최소 주당 하루 쉼 이상의 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전일, 또는 일요일 전일 및 월요일 오전이 일반적이며 유통업 등을 제외하고는 연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토, 일요일 휴무가 일반적이다.

18세 미만은 주당 2일의 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공휴일은 중앙정부, 주정부 및 각각의 市가 지정하는 연14일이다. 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매년 30일 유급휴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외 결혼 15일, 장례 2-4일, 공무(병역 등) 휴가, 출산 14주, 授乳 1일 1시간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3) 임금

스페인 급여는 기본급 12개월 이외 상여금을 크리스마스 및 여름 휴가 때 100%씩 지급함으로써 연간 14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별로 단체협약에 의해 12개월 치 지불이 가능하다. 단 이는 14개월 치를 12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금액 상 차이는 없다.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 이외 사회보장세가 37.2%(고용주 30.8%, 고용인 6.4%)이 납부되어야 한다.

4)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일 4개월 이내의 휴가(time-off)로 보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80시간 초과근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근무에 대한 지불이 단체협약 또는 개별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통상 수당은 정상급여의 75% 추가 지급하나 근로자와의 합의 시 50%선에서 가능하다.

5) 임금수준과 생산성

최저임금은 유로권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가 정해 발표하는데 2006년 현재 540.90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력 수준은 EU내 제 2위의 높은 고등 교육률(25.67%)과 140여 개 기술대학 및 대학원을 보유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노동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국 중 상위 수준이다.

생산성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비교적 바르셀로나, 바스크 지방의 생산성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나. 사회보장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가입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주재 상사 및 교민의 경우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혜대상은 퇴직연금 47.2%, 미망인연금 25.1%, 장애자 연금 24.1%, 고아연금 3.3%, 다수 가족연금 1.0% 순이다.

보장범위는 전국민 대상이며, 각 기업체에선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보장"과 실업 전 근무 년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 결정하는 "실업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최대 35년간 근무 시 65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노후 연금은 60세 이후 최대 수혜액은 퇴직 전 8년간 평균급여의 60%, 65세까지 점차 증가, 100% 수혜 받는다.)

2001.12월부터 연금기금 절약과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용 촉진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50% 감면하는 인센티브안을 시행하고 있다.

부담범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부담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사회보장금 산정을 위한 최소치 기준이 있다.

사회보장분담금 비율

(단위: %)

구 분	고용자부담	피고용자부담	계
일반분담금	23.6	4.7	28.3
실업보장	6.2	1.6	7.8
직업훈련분담금	0.6	0.1	0.7
급여보장기금	0.4		0.4
계	30.8	6.4	37.2

자료원: 스페인 노동부

다. 주요 노동 통계

노동인구 및 실업률

	2004 년	2005 년	2006 년
노동인구(천명)	20,185	20,886	21,584
취업인구(천명)	17,971	18,973	19,747
실업률(%)	11.0	9.2	8.5

업종별 취업 인구 및 비중

	2004 년	2005 년	2006 년
농수산업 (천명)	989	1,001	944
공업 (천명)	3,211	3,280	3,292
건설 (천명)	2,253	2,357	2,543
서비스 (천명)	11,518	12,335	12,968

노동비용

	2004 년	2005 년	2006 년
물가상승률 (%)	3.0	3.0	3.4
평균명목임금 상승률(%)	4.3	3.5	3.2

이상 자료원 : EIU

직군별 연 평균 급여 (연 14 회 지급기준 : 월 급여 12 회 + 의무지급상여금 2 회)

산업군	총급여(유로)
에너지제품생산업	31.929,81
제조업	21.007,62
식품,음료, 담배가공업	18.650,57
직물,가봉산업	14.792,18
목제산업 (가구산업제외)	15.025,77
핵연료산업	45.412,13
화학산업	31.304,60
기계제조업	21.795,75
전자,전기산업	24.030,65
사무용기자재제조업	23.322,59
건설	17.279,64
서비스업	18.235,69

자료원 : 스페인통계청, 2005 년 인건비 조사

8. 조세제도

스페인의 세제는 크게 세금(impuestos)과 부과금(tasas), 특별기부금(contribuciones especiales)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 주체는 중앙 정부와 자치주 정부, 지방도나 시 정부가 있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직 접 세	간 접 세
소득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비 거주인 소득세, 세습재산세(개인에게만 부과됨), 재산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재산이전 및 법률행위에 관한 세금, 특별세, 수입관세, 보험금에 관한 세

- 내외자기업 소득세율 단 일 : 35%
 - 기본적으로 내외자기업 소득세율이 35% 로 단일함.
 - 현재 법인세율은 35% 로, 향후 세제개혁을 통해 연내 30%까지 인하될 예정임.
- 산업별 혜택위주
 - R&D, 기술개발 및 혁신, 대체에너지, 관광, 시청각 산업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등 혜택

가. 법인세

부과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거나 사업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면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여부 결정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방지와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행위에 따른 이익, 주식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부과된다.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35%이며, 부동산투자기금을 포함한 단체투자기금에는 1-7%, 특정 조합 에는 20%, 석유 연구 및 채굴 단체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 방법 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공제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x 35% 이다.

한편,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 시 10%,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 시 10%, 영화 제작 투자 시 20%, 도서 출판에 투자 시 5%, 과학 연구개발 투자 시 30%, 수출이나 관광진흥 목적으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거나(조세피난처는 제외) 광고를 시행하고 국내외에서 개최 되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채용하거나 전년대비 장애자 고용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고용 장애자 1인당 연간 4,808 유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영토 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 (예: 외교관)
-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 거주지 변경 실시 해당 년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를 진다.

EU 회원국 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총 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소득세 대신 개인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노동 소득, 부동산자본 소득, 동산자본 소득,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투자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 동안 보유자산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세율은 20%-56%까지 누진 적용된다.

한편, 개인소득세 공제 대상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액 또는 재건축비, 세우따(Ceuta) 및 멜리야(Melilla)에서 취득한 소득,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 문화자산에 대한 투자 및 지출 등이 있다.

다. 부가가치세(IVA)

기업이나 직업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카나리아, 세우따,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16%: 기본세율
- 7%: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 4%: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보호시설

보험, 금융,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및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수출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카나리아군도, 세우따 멜리야(Ceuta y Melilla)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데 카나리아군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4.5%가 부과되며 세우따와 멜리야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스페인은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외환자유화 관련 법령으로는 칙령1816/1991, 42/1993, 1638/1996 등이 있는데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규제조항이 철폐되었다. 스페인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송금 또는 결제는 제약 없이 가능하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위반될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은행 송금, 외환지급 및 수령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극도로 짧은 기간내의 핫머니의 유출입이 스페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EU의 자본 흐름과 관련된 규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스페인 거주자가 아래의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스페인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무역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환지급 및 수령을 1년 이상 집행연기 또는 융자하는 경우
- 무역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차관계를 상계 처리 하는 경우
- 금융중개기관이 금융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차관계를 상계 처리 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제공하는 금융융자, 그리고 스페인 거주자가 발행한 채권, 어음 등 (스페인에서 을 비거주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금융 융자로 간주 되어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여행자가 1인당 6,010.12 유로 이상을 소지하여 출국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이를 압수할 수도 있다. 한편 1인당 6,010.12 유로 이상을 소지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신고의무가 있다.

비거주 개인이나 법인도 거주자와 동등하게 스페인 내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특성

1)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

인구는 4,300여 만 명으로 유럽 5위이며 매년 7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대국으로서 관련 소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 국내 소비 증가로 EU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3% 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경제 활성화로 높은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2) 지방상권발달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달, 경제활동이 지방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마다 특색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바이어 접촉 시 그 지역 특색을 익히거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까탈루냐 주 (바르셀로나) : 자동차, 전자, 화학,플라스틱,직물산업
- 바스크 주: 기계류와 공구류 산업
- 알리칸테 및 마요르카 : 신발산업 (최근 중국신발 유입으로 약화)
- 발렌시아 주: 직물 (홈텍스타일), 조명, 가구, 유리제품
- 안달루시아 주: 가구, 공예품

3) 치열한 가격경쟁 시장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산 고가품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의 중저가상품으로 시장이 구분, 중저가품 시장은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4)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 및 높은 인지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 자동차 등 자동차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 및 이동전화 등 브랜드 인지도가 탄탄하고 고가품으로서 품질경쟁력도 인정 받고 있으며 특히 삼성 핸드폰과 LG 에어컨, LCD, PDP 제품은 해당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5) 보수적 시장

일반적인 유럽시장 경향으로,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어 제품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상품수명주기가 긴 편이다. 일반 상품 구입의 예를 들면 제품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오래 들이며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며 직접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나. 유통채널

1) 독과점 형태의 유통구조

일반 소비재의 유통구조는 독과점 형태로 형성되어 백화점인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프랑스계 대형 할인 매장인 까르푸, 알 캄보 등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 시장 위상이 매우 높다.

2) 지역 대리판매책임자를 통한 유통방식 - 스페인 바이어 왜 독점수입권부터 요구하나

스페인 바이어는 첫 비즈니스 미팅부터 한국업체에 독점수입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 신임도나 판매능력을 모르는 한국업체가 당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첫째, 우선적으로 신상품을 독점 확보하여, 국내 수입업체간 경쟁을 피해 판매 마진을 높이려는 일반적인 바이어의 특성과, 둘째, 지역별 대리판매책임자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스페인 바이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제품 군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스페인은 국내 상권이 넓고(인근 포르투갈, 모로코를 커 버),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며 인간적 친밀도에 호소하는 비즈니스 특성으로, 각 자치주 별 영업망을 구축하는 특성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통상 바이어는 소재지가 아닌 원격지는 해당지역에서 친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가진 지역 출신

대리판매책임자를 통해 영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스페인 A 지역, B 지역 바이어에게 수출했는지라도, 바이어가 각 사가 확보한 대리판매책임자를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제품으로 다른 가격을 제시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는 가격 보전 이 어렵고 경쟁으로 마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비록 지역이 다른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책임자들에 의해 같은 물건 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바이어 입장에서는 시장 교란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 수입상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업체는 이와 같은 바이어 특성을 알고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어의 판매능력과 구축된 판매망을 잘 알고 독점권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개 바이어를 놓고 1년 후 실적비교를 하여 독점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다. 유망상품

1) 건설중장비 및 부품류

1999년 이후 계속되는 현지 부동산 건설열기는 2005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한 건설중장비 및 부품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 위주 시장이나, 소형 중장비 및 소모성 부품류 틈새 시장 개척이 유망하다.

2) 자동차 A/S 부품류 (OEM 제외)

2000 년 들어 한국자동차, 특히 기아 차의 수출신장률이 급격히 늘어, 2007년 현재 한국자동차 시장점유율이 5% 대에 이르고 있다. 기존 수출차량에 대한 부품 교체 시기가 도래하며, A/S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엔진 등 자동차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품은 완성차 메이커의 순정품 선호추세가 뚜렷하나, 2004년 EU 위원회의 자동차 외장재의 경우 OEM 제품 (완성차 메이커 공급 생산업체 자체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업체 진출이 활발하며, 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3) 의료용 기기 및 건강관리 기기

의료기기는 매우 보수적이며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 소형 2만불 내외 의료용 기기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지인의 미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라젬 사의 국산 맛사지 침대가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4) 인쇄기기

통상 이태리, 독일산을 많이 구매하며 현지에서도 생산하나 가격적 요인으로 한국업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종이컵, 캔, 팻트병 라벨링 기기

5) 전자제품

위성 방송 이용자가 늘어나며 국산 TV 수성 셋톱 박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6) 중전기 장비 (Heavy Electronics)

스페인 자국도 변압기 생산강국이나 가격적 요인으로 한국산을 많이 찾고 있다. 중형 이상 변압기, 소형 제외

2. 물가정보

□ 도시 : 마드리드(스페인)			환율 : US 1 불 = 0.827유로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702	7.1	구두(1켤레, 소가죽)	140.4
1.2	넥타이(1개, 실크100%)	58.5	7.2	치약(150g, 1개)	2.05
1.3	와이셔츠 (1벌,면100%,간팔,흰색,현지브랜드)	46.8	7.3	칫솔(1개)	2.9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19	7.4	면도기(1세트)	7.95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421.2	7.5	건전지(1세트, 1.5V AA)	2.8
1.6	스타킹 (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11.11	7.6	화장지(1통, 300매)	1.75
1.7	청바지(Levi's)	104.13	7.7	비누(1개)	1.5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2.8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68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2.3	8.2	볼펜(12개)	4.44
2.3	닭고기(1KG, 생닭)	6.43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3.45
2.4	쌀(1KG,Short Grain)	1.11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2.63
2.5	밀가루(1KG)	1.04	8.5	휴대폰(범용형, Nokia 6200)	287
2.6	설탕(1KG, 백설탕)	0.7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0.53
2.7	계란(10개)	1.75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1회설치)	35.1
2.8	감자(1KG, 현지산)	3.49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35.1
2.9	미네랄워터(1.5ℓ,Evian 1Pet)	1.2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8,240.29
3.1	고추장(1Kg)	9.24	9.2	엔진오일(1L)	6.08
3.2	된장(1Kg)	8.07	9.3	휘발유(1L)	1.29
3.3	라면(1개)	1.0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351
3.4	설탕탕류(1인분,설탕탕,곰탕등)	15.4	9.5	자동차보험료(2,000cc1년신규종합보험)	1,778.4
3.5	불고기(1인분, 200g)	14.62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4.04	10.1	지하철(1구간)	1.00
3.7	김치찌개(1인분)	12.28	10.2	시내버스(1구간)	1.00
3.8	된장찌개(1인분)	10.95	10.3	택시(기본요금)	1.93
	4. 기호식품		10.4	택시(추가요금/Km)	0.99
4.1	햄버거(1개)	3.74	10.5	10회권(버스, 지하철사용)	6.25
4.2	피자(1판)	24.21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7	11.1	전화개통비(1회선,가입비,장치비 포함)	81.9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67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9.89
4.5	담배(수입산, 1갑)	3.22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16
4.6	위스키(1병, 750ml)	13.98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
4.7	커피(1병, 175g)	5.12	11.5	국제전화(현지-서울,3분,평상)	5.11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1통,2~3페이지)	0.41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2,574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1통,10g이하,현지-서울)	4.1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914	11.8	특급우편(DHL,1개,1Kg이하,현지서울)	172.67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5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600 %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1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66.8			
6.2	VTR(6헤드, 범용)	166.1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39.2			
6.4	전자레인지	174.3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753.8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34			

□ 도시 : 마드리드(스페인)			환율 : US 1 불 = 0.827 유로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558.37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819	18.2	상여금(월 급여대비%, 연간)	16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0.06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5,795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3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8,954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4달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0,475	18.6	연간국경일	12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1 라운드)	46.8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1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매매가능,종신양도가가능)	81,9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64.35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702	19.1	법정최저자금	7,02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5.74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1,7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7.02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35%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FullCover,치과제외)	1,778.4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52.65		유한회사(3,000유로),주식회사(6,00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4.07		기본(35%),300유로 미만(30%)	
	15. 신문·방송·잡지			IT 혹은 신기술 투자 (10%)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35.1			
15.2	한국신문(1개월)	-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40.6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5.27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561.5			
16.2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228.15			
16.3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46.24			
16.4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87.75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56.16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3.4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출초임)	1,719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051			

(자료원 : kotra 세계주요도시 생활여건)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직접 우편을 통한 바이어 접촉

스페인 현지 바이어는 업무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보다 인간적인 관계 및 신뢰를 보다 중시하는 현지 관행으로 담당자간 직접 연락을 통한 인간관계 구축을 매우 중요시한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거래성사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한번 신뢰가 구축이 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고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거래 시에는 샘플을 직접 받아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주로 거친다.

따라서 첫 접촉 시에는 가급적 회사로고가 쓰여진 공식 레터를 통하여 접촉하고 샘플 등 관련 자료를 보내 바이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 참가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국가 기관이나 협회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외국거래업체를 주로 발굴하고 있다. 주로 유럽 내 다른 국가와의 거래가 많은 편인데 유럽 내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유럽 내 다른 국가 바이어와 이미 거래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조사대행 서비스 및 해외 세일즈 출장 이용

코트라에서 실시하는 해외 시장조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와 아울러 바이어 발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 서비스는 기본적인 시장동향 파악과 함께 관심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를 1차적으로 접촉하므로 향후 거래를 위한 구체 협의 시 유리하다.

해외 세일즈 출장의 경우 사전에 코트라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섭외하고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 현지에서 방문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 각종 전시회 디렉토리 검색을 통한 바이어 발굴도 가능.

스페인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Official Catalogue를 입수하여 관련품목 취급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신뢰도가 높고 동종업종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므로 의외로 좋은 거래선을 만날 수 있다

5) 관련 협회 정보 활용

관련 전문 기업 연합회 소속 기업 검색을 통한 바이어 발굴. 아울러 협회 발간자료를 통한 기업검색도 가능

- 수출기업협회
 - 전화 : 34-934150422
 - 팩스 : 34-934160980
 - 주소 : Gran Via Corts Catalanes 684 08010 Barcelona
 - 홈페이지 : <http://www.amec.es>

- 전경련
 - 전화 : 34-915663400
 - 팩스 : 34-915628023
 - 주소 : Diego de Leon 50 28006 Madrid
 - 홈페이지 : <http://www.ceoe.es>

- 전자통신협회
 - 전화 : 34-915902300
 - 주소 : Príncipe de Vergara 74 28006 Madrid
 - 홈페이지 : <http://www.aniel.es/>
 - 이메일 : aetic@aetic.es

- 전자 및 IT분야 수출업체 연합회
 - 전화 : 34-932478560
 - 팩스 : 34-932478561
 - 주소 : Gran Vía de les Corts Catalanes 774 08013 Barcelona
 - 홈페이지 : <http://www.secartys.org/>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연합회
 - 전화 : 34-915621041
 - 주소 : C/Castelló 120 28006 Madrid
 - 홈페이지 : <http://www.anfac.com/>

- 완성차 제조업체연합
 - 전화 : 34-913431343
 - 팩스 : 34-913450397
 - 주소 : Fray Bernardino Sahagún 24 28036 Madrid
 - 홈페이지 : <http://www.anfac.com>

- 전자상거래협회
 - 전화 : 34-932404072
 - 팩스 : 34-932012988
 - 주소 : Avda. Diagonal 437 08036 Barcelona
 - 홈페이지 : <http://www.aecem.org>

- 조명기기 제조업체연합
 - 홈페이지 : <http://www.anfalum.com>

- 전기제품 제조업체연합
 - 전화 : 34-934050725
 - 팩스 : 34-934199675
 - 주소 : Avda. Diagonal 477 08036 Barcelona
 - 홈페이지 : <http://www.afme.es>
- 시멘트 제조업체연합
 - 전화 : 34-914411688
 - 팩스 : 34-914423817
 - 주소 : C/José Abascal 53 28003 Madrid
 - 홈페이지 : <http://www.oficemen.com>
- 의학분야 기업연합회
 - 전화 : 34-915759800/ 34-932014655
 - 홈페이지 : <http://www.fenin.es>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최근 각종 사이트를 통하여 스페인 기업 검색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많은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담당자 확인을 한 후에 접촉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바이어 접촉 시에는 충분한 사전 확인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스페인에서 바이어 및 품목 검색에 자주 이용되는 웹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www.msn.com
- www.terra.com
- www.yahoo.com
- www.microsoft.com
- www.passport.com
- www.google.com
- www.ya.com
- www.eresmas.com
- www.lycos.com
- www.navegalla.com

스페인에서 B2B 또는 B2C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마켓 플레이스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마켓 플레이스명	URL	타입	분야
ACAMBIODE	acambiode.com	Horizontal	무역
ADQUIRA	adquira.com	Horizontal	E-정부조달
AQUANIMA	aquanima.com	Horizontal	E-정부조달
BRICSNET	bricsnet.com	Vertical	부동산/건설
CALIDALIA	calidalia.com	Vertical	식품
CALOR Y FRÍO	caloryfrio.com	Vertical	난방기
CONSUMALIA	Consumalia.com	Vertical	식품
ELECPOINT	elecpoint.com	Vertical	전력 수도
ESPACIO PYME	espaciopyme.com	Horizontal	중소기업
IBERPYME	iberpyme.com	Horizontal	중소기업
IBER-X	iber-x.com	Vertical	통신
INTELOGÍSTICA	intelogistica.com	Horizontal	물류
KETAL	ketal.com	Vertical	관광 호텔
LEATHERXCHANGE	leatherxchange.com	Vertical	가죽의류
LEGAZPI	legazpi.com	Vertical	물류
LOGISMARKET	logismarket.com	Vertical	물류
LONJA-AVICOLA	lonja-avicola.com	Vertical	식품
MACHINEPOINT	machinepoint.com	Vertical	산업용 기계
MEDICALVIRTUALMARKET	medicalvm.com	Vertical	의료기기
MERCADOMARKETING	mercadomarketing.com	Vertical	기업 마케팅
MERCAEMPRESAS	mercaempresas.com	Horizontal	E-정부조달
MUNDOACERO	mundoacero.com	Vertical	철강
OBRALIA	obralia.com	Vertical	건설
OPCIONA	opciona.com	Horizontal	E-정부조달
PLASTIA	plastia.com	Vertical	플라스틱
PLAZASALUD24	plazasalud24.com	Vertical	의료용품
PYMARKET.COM	pymarket.com	Horizontal	중소기업
SANILINE	saniline.com	Horizontal	보건용품
SOLOSTOCKS	solostocks.com	Horizontal	주식 매매
SUBASTMEDIA	subastmedia.com	Vertical	출판
TRACTES	euroinfomarket.com	Horizontal	중소기업
VIAKATALYX	viaKatalyx.com	Horizontal	섬유
WORLD FISH SITE, S.L.	fislatino.com	Vertical	수산물
WTRANSNET	wtransnet.com	Vertical	유통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1) 바이어 성향: 보수성향이 강하고 거래처 중시

스페인 사회에서는 친구(amigo)와 같은 개인적 친분이 중시되며 오랜 기간 거래해온 공급업체가 있는 수입상들은 단순히 가격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거래처를 가진 수입상에게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처음 연락할 때 회사소개 및 연혁 등 바이어가 회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처음 연락 이후 가급적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접촉방법: 최초 접촉은 우편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에 인쇄된 회사 소개서와 제품 카탈로그를 보아야 상대 회사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맨 처음 접촉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에 회사소개서를 작성하고 제품 카탈로그와 가격리스트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자료 수신 및 검토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3) 상담진행: 상황의 지속적 확인

스페인 수입상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재촉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너무 재촉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요령껏 재촉을 해야 하므로 인내와 더불어 꾸준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메일 접촉 시 담당자 부재 또는 메일전달 등의 문제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 담당자 출장 시에는 업무 대행자와 상의하거나 출장일정을 파악하여 출장 이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매방법: 선별작업 단계부터 성실하게 대응

스페인 바이어들은 취급/관심품목의 자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당장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부분 연중 접수된 수출업체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구매를 앞둔 약 2달 전부터 접수된 자료를 선별하여 업체를 접촉하는 작업을 한다.

선별작업 단계는 수입상의 단독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자사 제품을 세일즈하는 판매책들과 수 차례의 선별작업을 추진하여 최종적인 구매 물량을 확정하게 되며 구매 물량은 일반적으로 취합된 물량의 120%를 오더하며 여유물량인 20%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에 따라 추가 오더가 결정된다.

이 선별작업 단계 시에 가장 빠르고 성의 있는 Follow Up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바이어는 거래를 함께 할 후보업체의 상품 경쟁력은 물론 업무태도를 측정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5) 구매시기: 자료 발송 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시기

스페인의 비즈니스 캘린더는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상들의 구매 시기는 연중 1번 main order와 1번의 추가 오더 시기가 있고 품목의 성격, 계절상품에 따라 서 main order 시기가 정해 지기도 한다.

□ 일반적인 상품의 연간 구매계획을 보면,

- 1) 부활절 휴가(3월 중순-4월 중순)를 전후로 구매 확정
- 2) 7월 중순 이후에 선적
- 3) 8월말 스페인 도착, 통관
- 4) 9월초부터 구매 가계약된 지역 도매상들에게 디스트리뷰팅
- 5) 12월-1월초 추가 오더

반면, 계절상품으로 여름 상품인 경우 11월-1월이 물량 취합 및 구매 시즌으로 부활절 휴가 전에 스페인에 도착하여 여름을 대비한 세일즈 시기로 접어들며, 겨울상품일 경우는 일반적인 구매 시기와 같은 시기에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소 정형화된 구매 패턴 때문에 한국업체가 발송한 자료들은 접수 즉시 업무가 개시되는 예가 흔치 않으며 구매시기가 될 때까지 바이어 파일에 비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송한 자료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바이어가 구매 선정 작업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자료를 발송하는 것도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6) 휴가 및 공휴일 기간 확인

스페인 기업들은 대부분 7월에서 8월 중 한 달여의 휴가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 바이어의 휴가계획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페인에는 주 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바이어가 소재한 지역의 공휴일 여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나.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1) 바이어의 신뢰도 파악 선행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바이어의 영업현황과 재정상태 등 신뢰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과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사례가 많은 바이어인 경우에는 그만큼 사소한 사안이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을 지체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클레임을 걸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바이어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서는 무역관을 통해 현지 신용조사기관의 믿을 만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거래조건의 실행가능성 판단

계약 성사를 위해 다소 무리한 거래조건을 제의했거나 수용했다면 냉정하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 현실성이 없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건의 경우에는 수정을 제의하여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이를 반복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소한 경우에도 바이어 클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품질조건 및 인도조건의 차질 없는 이행 노력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전에 제시한 샘플과 품질, 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물건이 선적되는 경우이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양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계약에 임해야 한다.

생산과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적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 수출 시에 갖추어야 할 형식승인 내지는 인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할 경우 바이어 측과 협의 조치 방법을 결정한다.

4) 결제조건의 적합성 판단

바이어 측은 가급적 외상 조건을 선호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성사를 위해 설령 외상조건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거래가 지속되면서 결제조건이 더욱 완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바이어의 무리한 결제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방침으로 T/T 내지는 L/C조건을 바이어에 제시하고 이를 수용토록 하며 바이어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외상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거래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바람직하다.

외상조건으로 만약 결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령 상호간 협의로 해결이 되더라도 거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결제통화는 유로화로

스페인이 유로권에 편입되면서 그간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대부분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유로화 결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달러화 결제 관행이 남아있다. 유로통화의 출범 이후 줄곧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통화를 유로화로 하는 것이 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6) 계약서 작성시 언어문제 주의

계약서 작성시 언어로 인한 문제제기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한다. 한국식 계약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 표기나 오역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언어 문제

투자유치지방단체 혹은 대기업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업체와의 교신 시 언어장벽이 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독점 수입상권의 빈번한 요구

스페인 수입상들은 대부분 17개 자치주에 판매 대리책임자 또는 대리업체와의 유통구조를 구축 하고 있어 자사가 수입한 동일한 상품이 다른 지역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비록 지역이 다른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책임자들에 의해 같은 물건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 교란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 수입상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시장에서 첫 비즈니스 미팅에 임한 한국업체의 경우 1년 정도 2~3 개 바이어를 통해 판매케 하여 바이어의 유통, 판매 능력 파악한 후 독점 수입권을 주는 것이 권고된다.

다. 현지 투자 관련 애로사항

1) 상사 주재원 동반비자 발급관련

현지 진출 한국기업 주재원은 본인 및 동반가족 비자발급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동반가족 비자발급 시 현지심사기관의 관료주의 및 중앙정부와 지방도시간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비자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지 진출 지상사들의 진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해외 상사주재원의 근무기간이 4~5 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비자 허용최대 기간이 1 년에 불과하며, 갱신할 때마다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본인이 출석하여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스페인에 거주하다가 수령을 위해 일시 귀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스페인의 경우 동반가족 비자발급에 짧게는 6 개월 ~ 길게는 1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재원 발령 이후 동반 출국한 가족이 무비자 체류허용기간인 3 개월 이후 불법 체류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지 정부의 협조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타 EU 국가 다른 수입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

수입물품 통관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네덜란드 등 EU 선진국은 통관시점 이후 한달 또는 매 분기마다 회사 구좌로 환급 부가가치세가 자동 입금되나, 스페인의 경우 수입물품의 국내 소비자 판매 이후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지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의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함. 이런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지 투자 판매법인의 경우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스페인은 유럽 자동차 조립산업지로서 관련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나, 미국 혹은 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 부품업체가 많으며, 스페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수입하고자 할 시,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업체의 스페인 직수출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현지 배선용 테이프 시장진출에 성공한 H 사의 사례를 보자.

스페인 수입업체 P 사는 90년대 중반에 스페인기업 국제화를 계기로 미국의 P기업이 인수 합병게 된 업체로 배선용 테이프를 자체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국 제조업체는 수많은 샘플과 물성검사를 해서 스페인 수입업체에게 송부하였고, 미국 본사의 품질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오더가 시작되겠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미국 본사에서는 한국업체의 제조 설비 등 업무 환경이 너무 영세하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한국업체와 제품의 질에 만족했던 스페인 수입상은 한국 업체 편에서 다시 한번 시도할 테니 일단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당부를 하였으며, 미국본사에 치열한 설득 작업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스페인 바이어는 “스펙과 질에 맞는 물건 만들어 주는 성의 있는 업체라는 것이 중요하지 큰 기업 만나서 오히려 핸들링 하기가 어렵다.” 라고 밝혔다.

나. 실패 사례

바이어의 바이어들은 정해진 납기일까지 요구기준이 충족된 제품을 납기받기를 원한다. 국내 업체들도 최대한 이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겠으나, 주문이 밀려들고 급한 납기철에는 때때로 ‘밀어붙이기식, 또는 이번만 적당하게 빨리빨리’ 라는 한국식 업무처리 방식이 나오곤 한다.

때로는 ‘요행과 융통성’ 이 있는 거래가 통용되는 한국사회와 융통성 없이 FM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바이어간의 문화차이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다.

실제 현지 바이어가 오래 거래한 한국업체와의 거래에서 한국의 ‘대강주의’에 반기를 들고 물품수령을 거부하여 한국업체가 손해를 본 사례를 들어보자.

수입업체 M 사는 인지도가 높은 스페인 중견기업으로, 한국 S 사와 OEM 주문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착실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한국에서 주문생산량이 늘면서 M 사는 한국에 Inspector 사무소를 개설하고, 수출업체인 S 사는 생산된 제품을 Inspector 를 통해서 검사 받은 후 선적, 수출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거래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S 사의 주문물량이 밀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수입업체의 본격적인 주문물량이 밀려들면서 S 사는 일손이 딸리기 시작했다. 생산제품 Inspection 을 하고 나서 선적할 경우 도저히 수입상의 요구한 납기일을 맞추 수 없었던 수출업체 S 사는 바이어의 납기일을 맞춰야한다는 강박관념에 Inspection 없이 40 Feet 1 컨테이너치를 미리 선적해버렸다.

이후 실시된 Inspection 에서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은 'No' 싸인을 받았으나, 제품을 실은 배는 이미 한국을 출발, 스페인으로 떠난 뒤였다. 당황한 한국업체는 선적된 물품을 50% 파격할인가에 제시하고 인수하여 줄 것을 오퍼하였으나, 바이어의 대답은 'No' 였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질이 낮은 제품을 유통시켜 자사 브랜드 별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바이어의 입장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거래로 쌓인 친분과 신뢰로 호소하여도 바이어의 입장은 강경했다.

결국 한국업체는 물품전체를 Shipback 하여야 했고, 물류비와 이미 납품을 할 수 없게 된 제품을 떠맡아야만 했다. 이후 한국업체는 '유통성'을 발휘, Shipback 된 제품을 타지역에 판매하려 했으나, 바이어가 이를 눈치채고 수출업체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업체의 사과에도 바이어의 분위기와 관계는 아주 냉랭해졌으며, 수년간 쌓아온 신뢰도 한 순간 실수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바이어 M사와 한국 S사는 좋은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으나, 상기 사건으로 악화된 관계회복에 또 다시 수년의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업체가 결정이 빠른 대신 유통성이 있다면, 현지 바이어는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나, 한번 결정되면 유통성 없이 매사 FM 대로 처리한다. 이런 비즈니스 문화차이를 잘 고려하여 신뢰를 쌓아나가야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임차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SIN MUEBLE)와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CON MUEBLE)의 2가지 종류가 있다. SIN MUEBLE의 경우에도 주방용 기본설비(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쿠커, 식기세척기 등)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CON MUEBLE도 거실용 소파, 식탁, 침대 등만 구비된 SEMI와 TV, VCR등은 물론 액자까지 완전 구비된 FULL로 구분 된다. 고급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수영장, 테니스코트 등도 설치되어 있다.

신학기철인 9월에 아파트 임대수요가 증가하여 입주가 용이치 않는 경우가 있다. SEGUNDA MANO(중고품 및 주택거래 정보지)나 부동산회사를 통해 주택 물색 가능하며, 현지인에 비해 월 임차료 지불이 정확한 한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의 주택 임차를 임대 주들이 선호한다.

임차계약 해지 시 빈발하는 문제로 주재국 임대차 법 상 임대인은 퇴거 시 임대주택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를 지며, 임대 계약 시 보통 1,2달치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계약해지 시 주택내부 기물이 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금액을 제한 채 돌려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2달 전 통보하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상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은행 구좌 개설

기본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체류허가를 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은행의 구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르다. 체류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계정'을 열수 있으며, 은행에 체류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나 체류증이 없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소위 " No Residente" 라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비 거주자 계정'으로 개설해야 한다. 이 증명서 발급에는 약 1-2일이 소요되며, 은행 계좌개설은 서류만 완벽하다면 당일에도 가능하다. 은행 이자율이 매우 낮고 달러 계좌의 경우 계좌 관리수수료로 오히려 잔고가 마이너스 되는바, 적절한 계좌관리가 필요하다.

다. 차량 구입

스페인의 차 값은 유럽 내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싸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면 1.5내지 2배 정도 비싸다. 예를 들면 현대 엑센트의 경우 스페인에서 세금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 1만6백 유로 (한국 돈으로 약1,30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신차구입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신차를 구입시에는 자동차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년 내지 5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량을 구입 희망할 시에는 중고차전문상을 통해서 살수도 있으나, 다소 비싼 편이며, 신문지상의 베흑시장(현지어로는 Segunda Mano)을 통해 약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중고차들은 보증기간에 문제가 있다. 즉 3년 된 중고차는 별도의 보증수리 계약을 Race라고 하는 회사와 맺지 않는 이상은 자비로 고쳐야 한다.

스페인에서는 휘발유 보다는 디젤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은 드물고 스틱/매뉴얼 트랜스미션 자동차를 주로 사용한다.

라. 자녀 교육여건

1) 유치원

스페인의 공립유치원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립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공립유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류 가정 이상 거주지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수준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도,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웬만한 사립유치원 보다 적고 교사의 자질도 훌륭하다.

스페인에서는 유치 원을 포함해 공립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사의 자질이 사립학교보다 훌륭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사립유치원은 기본 입학금과 수업료가 공립유치원보다 더 비싸면서도 각종 특별활동수업(수영, 체조, 무용, 미술 등)비를 별도로 받지만,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특별활동 교육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급식에 있어서도 공립유치원은 사립과 똑같이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위생적으로 준비하고 부모에게 미리 식단을 제공한다.

2) 초등학교 - 고등학교

미국인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학비가 비싸고 T/O가 제한되어 있어 입학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 미국인학교 T/O 부족으로 입학하지 못한 경우, 미국인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시키는 International College Spain을 보내는 것이 차선이다. 영국인학교는 과락이 많아 일정기간 근무 후 귀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례입학 자격 취득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 미국인학교 (American School of Madrid)

- 정형화된 입학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장 또는 입학담당 교무주임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결과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한다. 대개 영어(구두 및 필기)와 수학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수학시험의 경우 문제 자체의 수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어로 된 수학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은 어려운 편이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학제는 유치원 3년(pre-kinder, kinder1, kinder2)과 1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2학기 제도이다.

○ 국제학교 ([International College of Spain](#))

- 정형화된 입학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장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영어 및 수학시험을 실시한다. 미국인학교보다 시험이 어렵지 않다.
- 학제는 유치원 3년과 1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 영국인학교 ([British Council School of Madrid](#))

- 영국인학교는 영어와 스페인어 2개국어로 동시에 교육을 시키므로 자녀가 2개 언어를 다 잘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교육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영국인 학교가 영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 분위기가 엄격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이 있고, 낙제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스페인 거주 후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 진학할 계획인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자칫 과락을 하는 경우 향후 한국 대학의 특례입학 대상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학제는 유치원 3년과 1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1학기: 10월, 2학기:1월, 3학기:4월)이다
- 입학시험은 매 학년 2학기에 실시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먼저 1년간의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 후, 1년간 학생의 성적 및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입학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초등학교 :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 시험, 수학 필기시험
- 중학교 : 지식시험 :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 시험, 수학 필기시험
- 면접 : 과거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 고등학교
- 지식시험: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 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학 필기시험 (영어,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시험실시). 고학년은 과학시험과 작문시험 중 택일 가능.
- 면접 : 과거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3) 스페인의 학제

스페인 학제는 "룩세"로 불리는 교육제도법 (LOGSE ; Ley Organica General del Sistema Educativo)에 의해 정해지며 이외 영국, 미국 등 외국인 학교의 경우는 자체 학제를 운영

하고 있다. 스페인 내 학제는 97년부터 종전 8-3-1에서 현행 6-4-2 신학제로 변경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9월에 신 학년을 시작한다.

구 분	대상연령	연수	비 고
유치원	4-6세	3년	
초등교육(E.P.O)	7-12세	6년	의무교육
중등교육(E.S.O)	13-16세	3년	의무교육
고등교육(Bachillerato)	17-18세	2년	인문, 기술과학, 의료, 예술 4개 분야
대학교		5년	

주1: E.P.O ; Ensenanza Primaria Obligatoria (1차 의무교육)

주2: E.S.O ; Ensenanza Secundaria Obligatoria (2차 의무교육)

주3: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선발시험(Selectividad) 필요

마. 주거환경

마드리드 등 주요도시의 경우 시내곳곳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가로등이 많고 밝으며 치안상태가 양호해 주변 산로나 조깅 등에 문제가 없고 상당수 신설 아파트에는 수위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이민자들에 의해 공항, 구시가지, 관광지 등지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범이 증가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바. 한국식품 조달여건

스페인 식생활이 한국과 유사하여 마늘, 양파, 배추 등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가에서 구입이 용이하다. 또한 마드리드의 경우 시내에 한국식품점 2개소 이외 일본 및 중국식품점 등이 있어 식품 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며 한국식품점의 경우 60 유로 이상 주문 시 배달 가능하다.

1) 한국식품점

- 한국식품점 : INFANTAS 15, 28004, MADRID TEL:91-531-6649
- 한스식품 : C/MAESTRO GUERRERO 6-A 28015, MADRID TEL: 91-559-9896
- 떡, 양념, 면, 라면, 차, 젓갈, 반찬, 김치, 냉동식품 및 일부 가전제품 판매
- 품목 및 가격 (단위 : 유로)

품 목	단 위	가 격	비 교
고추장	kg	5.1-5.5	
된장	kg	3.6	
라면	개	0.7	컵라면은 0.8
국수	kg	6.0	
당면	500g	10.5	
젓갈	병	3.9-11.7	
김치	kg	3.6	
멸치	250g	4.5	
김	축	15.0	
떡	kg	6.0-9.6	
쌀	2.27kg	5.4	

사. 주변여건

1) 생필품 구입 용이성

근처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및 시내백화점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데 소규모 슈퍼마켓의 경우 점심시간인 오후 2시부터 문을 닫아 4,5시경에 열어 8시 정도에 다시 문을 닫는 바, 개점 시간에 가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병원. 약국

직장을 가진 사람은 본인포함 가족까지 의료보험을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는 월급의 0.7%이며 고용자가 0.6%, 피고용자가 0.1% 각각 부담 납부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INSALUD(INSTITUTO NACIONAL DE SALUD: 국가의료기관)이 안달루시아, 나바라 등 4개 자치정부만 제외하고 전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INSALUD에 본인 주치의가 지정돼 있다. 직장의 의료보험 외에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하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병원은 국민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2가지로 대표된다.

	국민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회사
진료	해당주치의 진료 후 전문의에게 진료 받음	해당과로 직접 문의, 진료 받음
치료체제	INSALUD의 절차 밟음	보험회사의 체제 밟음
진료비	무료이며 약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본인부담으로 구입	월간 납부하는 보험료 외 진료.치료비 무료. 약은 본인부담으로 구입
진료시간	9:00-14:00 16:00-19:00	9:00-14:00 16:00-19:00
야간.주말	INSALUD이 지정한 병원에서 응급 조치 가능	24시간 응급실 개방

아. 레저여건

마드리드 시내에서는 왕궁, 마요르 광장, 솔 광장, 그란비아 등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며, 마드리드 근교 여행코스도 ARANJUEZ 왕궁, SEGOVIA의 로마시대 수도, AVILA의 성곽, 전몰자의 계곡(VALLE DE LOS CAIDOS)등이 있으며, 피크닉장소로 마드리드시 곳곳에 위치한 공원, 놀이동산, 대공원, 동물원 등이 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동네마다 있어 테니스, 수영, 라켓볼, 탁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골프도 회원권 보유 시,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나 최근 골프인구 증가로 회원권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마드리드 인근 최고가 회원권 가격은 약 10만 유로 수준이다.

음악회, 미술전시회는 문교교육부 및 민간단체기관의 주최로 곳곳에서 개최되고, MUSEO DE PRADO(프라도 박물관), 소피아 여왕 현대미술관을 비롯 국립, 시립, 민영박물관이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는 마드리드 SAN ISIDRO(마드리드시의 보호성인) 축제가 5월15일, 발렌시아 불의 축제(FALLA)가 3월19일, 팜플로나 SAN FERMIN(투우축제)가 7월 7일, 세비야 등 안달루시아 지방의 부활절 축제 등이 있다.

자. 치안상태

스페인인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최근 불법이민자의 증가로 호텔 인근 및 로비, Gran Via 등 시내 외국인 관광지, 공항 등 혼잡한 곳에서 손가방, 소지품 등의 소매치기와 강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철승차시나 혼잡한 출퇴근 시에도 소매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가의 경우 야간외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잘 되어있으나 폭력배나 강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택, 사무실의 대물 치안상태는 아파트 및 빌딩마다 수위가 상주해 있고 보안시스템도 양호한 편이다. 늦은 밤 마드리드 시내 PUERTA DE SOL, GRAN VIA와 같은 도심에는 마약거래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음으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시골길 단독여행은 안전하며 시골사람들의 친절을 누릴 수 있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집단 범죄는 거의 없으며 PAIS VASCO지방의 ETA 테러는 예외적이다.

차.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일본인 혹은 중국인과 잘 구별하지 못하나, 한국과 거래경험이 있는 비즈니스맨들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올림픽 전엔 전쟁폐허를 연상했으나 그 이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근면한 민족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특히 유입되는 한국상품(자동차, 가전제품 및 컴퓨터)의 홍보로 이미지 고양중이다. 최근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대폭 높아 졌으나, 대 스페인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사람도 많다.

카. 한인회 및 한인학교

1) 재스페인 한인연합회

- 회장 : 김 태석
- 활동 : 교민친목 도모

2) 재서 마드리드 한인회

- 회장 : 문태웅
- 활동 : 마드리드 지역 교민회

3) 재서 바르셀로나 한인회

- 회장 : 강영희
- 활동 : 바르셀로나 지역 교민회

4) 마드리드 한글학교

- 학교장 : 김성환
- 주 소 : C/Francos Rodriguez, 106, 28039 Madrid
- 전 화 : 34-91-504-1177

- 활동 : 매주 토요일 10:00-14:00 수업. 1-6학년까지 각 한 반씩 있으며 국내 수업진도와 맞춤.
- 수업과목 : 1-2학년 국어.산수.음악 등 3과목, 3-6학년 국어.산수 사회.음악 등 4과목.

5) 바르셀로나 한국학교

- 이사장 : 전영태 (교장 : 추재권)
- 주 소 : C/Francos Rodriguez, 106, 28039 Madrid
- 전화 : 34-93-205-1795

타. 현지문화 관습

1) 종교생활

국민의 99%가 카톨릭이나 성당에 미사 참례하는 신도수는 적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만 참석하고 부활절, 크리스마스엔 고향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

2) 기질

북부 까탈루냐 및 바스코, 중부 마드리드, 남부 안달루시아 등 지역에 따라 기질에 차이가 다소 있으며 북부는 근면하고 경제적이며 남부는 여유 있고 다소 느린 편이다. 일반적으로 첫 대면하는 사람에게도 친근할 정도로 부담감 없고 친절하며 친구(Amigo) 또는 안면 관계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주먹질하는 일이 없고 말로 해결하며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민감, 장보러 갈 때도 정장하는 편이며 여성의 경우 아름답다는 표현 보다는 우아하다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담배꽁초 버리기, 횡단보도 건너기 등의 기초 질서 의식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3) 가족생활

결혼연령이 여자 24세, 남자 27세 이후로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쌍방 의 의사에 따라 결혼한다. 결혼 전 자유롭다가도 결혼 후엔 배우자에 충실하며 가정의 권위는 크지 않고 오히려 남편보다 부인의 위치가 더 강하다.

소득주체는 젊은 층에선 부부이며 중장년층에선 남편이다. 자녀에게 엄격하여 공공장소에서 도 체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부인에게 유리하다. 90년 이혼법 시행에 의해 이혼율이 매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양육문제는 부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외 남편수입의 50%를 자녀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

4) 예절

일반적으로 노약자를 우대하는 경로사상과 부녀자를 보호하는 사회이다. 단, 비합리적인 처사를 요구할 경우, 노인이라도 결코 존중 안하며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를 존중하는 편이다. 전혀 안면이 없는 경우라도 얼굴을 맞대하면 HOLA(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한다.

예컨대, 엘리베이터에서도 HOLA 및 ADIOS(안녕히 가세요) 인사할 정도로 인사성이 밝다. 크리스마스엔 가족에게 선물하고, 1월 5일 동방박사의 날엔 어린이에게 장난감, 인형 등을 선물한다.

5)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산 선물

직위, 신분 관계없이 한국적인 특산물을 좋아한다.(인삼차, 부채, 인형 등)

○ 현지인과의 원만한 대화법

- 정식 상담 전에 스페인까지의 여행담, 날씨, 스페인 사람 등 스페인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6) 이민족, 이교도 배타성

불법이민자가 많은 모로코, 중남미인, 동구권국민 등에 대해선 범죄자 및 마약거래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은 없으나 중국인으로 간주, 무시하는 사례가 있다. 올림픽 이후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7) 신뢰성

말이 많은 만큼 과장이 세고 OVER ACTION이 있으므로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사람 좋은 점과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공적인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조치에 반응이 느리므로 지속적인 확인 및 독려가 필요하다.

파.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문화

축구에 열광하며 농구, 수영을 즐긴다. 춤으로는 전통적인 플라멩코와 세비야나를 좋아하고 노래로는 전통 곡인 COPLA(우리나라 트로트와 비슷)를 즐긴다.

하. 외국인 금기사항

- 박물관등 관광지에서 작품이나 보존물에 손대는 행위
- 성당, 교회 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행위
- 산의 바위나 기념물, 유적지 등에 낙서 또는 각인하는 행위
-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부르거나 독촉하는 행위
- 기업체 등에 사전 약속 없이 불쑥 방문하는 행위
- 고급식당에서 웨이터 안내 없이 직접 입장하여 착석하는 행위
- 팁 관행을 준수치 않는 행위 (식당, 호텔, 바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금액의 5-10%의 팁을 남기는 것이 통례임.)
- 콘서트, 연극 등 공연장에서 꽃다발 전달을 위해 무대위로 올라가는 행위 (사전 진행자 측 승인을 얻거나, 무대 뒤 대기실에서 전달)
-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하는 행위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스페인 기후의 특징으로는 지중해 연안은 여름에 기온이 낮고 겨울에 높은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며, 반면 내륙지방은 겨울에 기온이 낮고 여름에 높은 대륙성기후를 보인다. 내륙은 여름 내내 고온건조하나 북부해안지방은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으며, 겨울은 우기로 태양 일수가 많지 않고 강우량이 높아 체감온도가 낮은 편이다. 기후관련 풍토병은 없으며 내륙은 1년 내내 건조한 편이다. 한 겨울에도 한국의 겨울과 같은 혹한은 아니나 날씨가 흐리고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을 수 있으므로 두터운 방한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드리드를 포함한 남부이남지역은 한 여름에 40~4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하며, 특히 2003년 여름에는 50년만의 더위로 남쪽지방은 53도에 이르는 살인적 더위가 맹위를 떨쳤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답게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따가워 남쪽지방에는 대부분 집이 흰색들이며 연중 선글라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습기가 없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 편이며 그늘이나 실내로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여름		겨울	
	온도(도)	강수량(mm)	온도(도)	강수량(mm)
마드리드	38 ~ 15	100 ~ 52	18 ~ -6.5	80 ~ 3
바르셀로나	30 ~ 13	100 ~ 20	16 ~ -1.0	168 ~ 9
발렌시아	36 ~ 14	158 ~ 13	18 ~ 2.2	54 ~ 1
세비아	43 ~ 12	71 ~ 0	18 ~ -4.0	40 ~ 2
카나리아	32 ~ 19	2 ~ 0	25 ~ 10.6	97 ~ 3

자료원: 기상연감(Anuario Meteorologico)

Madrid 수도의 월별 기후 평균치

요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평균기온(℃)	6.1	7.4	10.0	12.2	16.0	20.7	24.4	23.8	20.4	14.8	9.4	6.4	14.3
강수량(mm)	46.4	46.1	33.1	53.3	41.1	26.5	12.9	8.9	30.8	45.1	65.1	51.7	461.0

자료원: 기상청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으로 한국이 스페인보다 8시간 빠르다. 단, 섬머타임 실시기간 중에는 시차가 1시간 줄어들게 된다. 보통 3월에서 10월의 기간 중 실시하면 2006년에는 3월 26일 섬머타임을 시작하여 8월 현재 한국과 스페인의 시차는 7시간으로 한국시간이 빠르다.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될 때는 출발한 날 도착하게 되어 시간을 벌게 되지만 반대로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게 될 때는 출발 다음날 도착하게 되어 하루가 더 걸리게 된다.

2)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보통 사무실의 경우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부터 3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시까지인 경우도 있다. 단, 바르셀로나의 경우 점심시간이 1시에 시작한다.

관공서의 경우 9시부터 2시까지만 근무하며, 우체국도 2시까지만 근무한다.

은행 영업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08:30시부터 14:00까지 영업을 하며, 평일 중 하루는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한다. 부활절 연휴기간인 3월말의 1주일간은 휴무하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대다수 회사가 단축 근무를 실시하므로 오전 08:00시부터 점심시간 없이 14:30 이나 15:00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 가운데에는 8월 한 달 동안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점 시간 없이 10:00시부터 21:00 또는 10:00시까지(EI Corte Ingles백화점) 영업을 하며, 매월 첫번째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모두 문을 닫는다.

개인 상점들과 재래식 시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시에 문을 열어서 14:00시에 닫고,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후 16:00시나 17:00시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20:00시에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요일에는 오전영업만 하는 경우도 있다)

금요일에는 2시 또는 3시까지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 도량형

길 이	mm, cm, m, km 사용 (한국과 동일함)
공 간	제곱미터(s/m) 사용 (주택의 크기를 설명할때도 제곱미터를 사용함)
액 체	리터 사용 (한국과 동일함)
중 량	g, kg사용 (한국과 동일함)
온 도	°C 사용 (한국과 동일함)

라. 출입국/비자

한국, 스페인 양국간의 협정에 의해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며 90일 초과시 입국 목적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스페인의 관문은 마드리드 동쪽 약 13KM에 위치한 BARAJAS 국제공항으로서 입국청사 출입구 에는 경유객을 위한“TRANSIT”와 입국인을 위한“ENTRY” 표시가 있다.

EU국가를 경유하였을 시에는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를 하지 않으며 비 EU 국에서 올 경우 PASSPORT CONTROL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PASSPORT와 입국카드(도착 전 기내에서 작성)를 작성, 간단히 수속을 밟으며 이때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어준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객은 수하물 검사 없이 통과되므로 출입국 절차는 매우 간편한 편이다. 그러나 미 테러사태 이후 알까에다, 스페인 북부지역의 ETA(바스크분리 주의자) 테러 집단과 중국 등 밀입국자에 대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 장기 체류 시 참고 사항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 허가(RESIDENCIA), 취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의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허가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 이전에 관청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청 시에 교부되는 신청접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거주 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기업 주재원은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사회노동성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경찰서에 거주허가를 신청한다.

거주허가증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특히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본인이 출석하여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스페인에 거주하다가 수령을 위해 일시 귀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초 거주허가증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스페인대사관 또는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기 바람
- 주한 스페인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52 Tel : 794-3581, Fax : 796-8207
-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 C/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Tel. (34)91-353-2000
www.mofat.go.kr/ek/ek_a003/ek_eses/ek_a06/ek_b24/1173992_10759.html

마. 환율/환전

스페인은 EU가입국가로 공용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어로는 에우로라고 읽으며 표기 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천 단위에 .(점)을 쓰고, 소수점 아래단위에서는,(쉼표)를 사용한다. 금액으로 소수점을 표시하는 쉼표 아래 단위는 썬띠모라고 하며 표현 시 00 유로 000 썬띠모라고 읽는다.

달리는 호텔, 대형백화점 외에는 받지 않으니 가급적 환전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율이 유리한 정도는 호텔·백화점< 시내환전소< 공항환전소< 은행 순이다.

중앙은행 고시 2007년 8월 31일 기준 환율은 1유로 = 1,283.31 원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월~금 09:00~14:00까지이며 오후에는 문을 닫으므로 은행 업무는 오전 중에 처리해 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 항공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은 국내 약 31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요 연결 도시에는 Barcelona, Valencia, Bilbao, Vigo, Vitoria, Zaragoza, Sevilla, Alicante, La Coruña, Santander, Santiago de Compostela, Pamplona 등이 있다.

마드리드와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왕래가 많기 때문에 Puente Aéreo(뿌엔떼 아에레오)라고 해서 1시간 미만의 간격으로 출발하는 항공편(Shuttle)이 있다. 참고로 [공항관리 공단\(AENA\)](http://www.aena.es) 홈페이지 (<http://www.aena.es>)에서는 주요 공항 검색이 가능하다(스페인어만 지원).

서울-마드리드간 대한항공 직항노선이 2004.12.14일부터 2005.3.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 되었으며, 그 후에는 다시 폐쇄되었기 때문에 파리, 암스테르담,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서울과 유럽 주요 도시간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를 비롯해 KLM, AIR FRANCE, LUFTHANSA 등 주요 유럽 항공사들이 운항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도시와 마드리드 간은 스페인 국적기인 IBERIA, SPANAIR, AIR EUROPA 등과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연결해주고 있다.

마드리드에는 대한항공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여행사가 있으므로 현지에서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각 항공사간 제휴가 활발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여행 일정 및 현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스페인국적 항공사와 제휴여부를 고려하여 항공사를 결정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 파리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암스테르담까지 3시간, 프랑크푸르트까지 2시간 30분, 런던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 선편

스페인의 주요항구로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헤시라스, 빌바오 및 카나리아 등이 있다. 한국에서 물건을 선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항 일수는 약 45일 내외가 소요된다. 스페인에서 주변 섬으로 이동할 때는 주로 바르셀로나 또는 발렌시아로부터 출발하여 발레아레스 제도 및 이비사 섬, 카나리아 제도 등으로 여행하게 된다.

□ 택시

서비스는 정직한 편이며 합승이나 호객행위는 없다. 도로에 TAXI(택시) 라고 써있는 간판이 택시 정류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도로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차 지붕에 녹색 불이 켜있고, 조수석 앞 유리창에 'LIBRE'라는 글자판이 붙어 있는 것이 빈 택시이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지붕에 노란 불을 켜고 'OCUPADO'라는 글자판으로 바꾸게 되어 있다.

택시 통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콜택시가 별도로 있어서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지나가던 일반 택시가 무선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미터기를 켜고 고객이 있는 곳까지 온다. 전화번호는 91-371-2131, 91-547-8200, 91-547-8500, 91-445-9008등이 있다.

한편, 택시요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택시기사에게 'Recibo, por favor (레씨보 뽀르 파보르)'라고 하면 영수증을 써준다. 영수증에는 택시 면허번호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을 경우 택시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된다.스페인의 경우 택시요금 지급 시 미터기 요금만 지급하며 팁은 없다.

□ 공항에서 시내까지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국제공항부터 시내 중심의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Nuevos Ministerios) 지하철 역까지의 지하철 8호선이 운행된다. 개별 티켓이 1 유로, 10번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은 6.40유로이다. 공항으로부터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역까지 시간은 약 15분 소요된다.

2006년 개장한 제4터미널(T4)은 다른 터미널과는 떨어져 있으나 2007년 5월 지하철로 연결되었고, 공항버스로 다른 터미널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스페인 자국 내 항공사(IBERIA, SPANAIR, AIR EUROPA)에 한하여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 역에서 화물 체크 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공항 터미널과 같은 기능).

□ 공항 버스

마드리드의 바라하스(Barajas) 국제공항에서 시내 중심의 콜론광장(Plaza de Colón)까지 버스 89번이 연결되어 있으며, 요금은 2.4 유로 이다. 기본 요금 2.4 유로로 개인이 2개의 화물까지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이외에 화물이 추가 될 때마다 2.31유로의 추가 요금 이 부과된다.

그러나 콜론 광장, 특히 공항버스 정류장 주변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와 강도 상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우범지대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항버스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공항 출발 시각	콜론 광장 출발시각
첫차 04:45	첫차 04:45
05:45부터 06:00까지 매 15분마다	04:45부터 06:45까지 매 15분마다
06:00부터 23:00까지 매 10분마다	06:45부터 23:30까지 매 10분마다
	23.00 부터 00:00 까지 매 20분 마다
23:00부터 01:30까지 매 16분마다	00:00부터 01:30까지 매 30분마다
막차 02:00	막차 01:30

□ 시내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은 현금 승차 시 1유로이다. 버스는 거스름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버스 기사에게 잔돈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잔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6.40유로인 10 회권이 있는데 버스과 지하철에서 모두 통용되므로 시내 지리를 잘 알고 버스과 지하철 이용이 잦은 경우에는 10회권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지하철 노선을 입수하려 [마드리드 지하철공사 홈페이지](http://www.metromadrid.es) (<http://www.metromadrid.es>) 스페인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화면 상단의 RED DE METRO나 THE SYSTEM을 클릭한다.

버스 노선도는 마드리드자치주 운송연합 홈페이지(<http://www.ctm-madrid.es>) 언어 선택한 후 화면 좌측의 EMT를 클릭하면 버스노선 검색 가능하다.

□ 고속버스

스페인에는 마드리드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차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한편 철도가 달지 않는 곳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지하철 6호선(회색) Méndez Álvaro역에 남부버스터미널(Estación Sur de Autobuses)이 가장 큰 주요 터미널이고, 고속버스 회사에 따라서 다른 소규모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터미널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이용 시간대와 주말 등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

출발지 - 목적지	회 사	버스 터미널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 ENATCAR (GRUPO ALSA) - 전화 902 422 242 - http://www.alsa.es	Estación Sur de Autobuses
	- Continental Auto- - 전화 902 33 0400 - http://www.continental-auto.es	
마드리드 - 발렌시아	- AUTO RES, S.A. - 전화 902 020 999 - http://www.auto-res.es	Estación Sur de Autobuses
마드리드 - 빌바오	-GETSA (902 330 400)	Intercambiador de Autobuses Avda. de América

□ 열차

국영 철도관리 공사인 렌페(RENFE)가 전국 주요도시를 운행하며, 요금은 고속버스의 2배가 넘어 비싼 편이지만, 침대칸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국내 장거리 여행시 숙소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렌페에는 딸고(TALGO), 인페르시티(INTERCITY), 엘렉트로뜨렌(ELECTROTREN)과 같은 특급 열차와 익스프레스(EXPRESO), 라피도(RAPIDO)와 같은 급행열차가 있다. 국제간 연결하는 특급열차인 에우로시티 (EUROCITY)도 있다.

스페인 고속철도인 아베(AVE)가 1992년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 개통된 구간은 마드리드-꼬르도바-세비야 구간과 마드리드-사라고사-예이다 구간, 그리고 마드리드-톨레도 구간이다. 소요 시간은 마드리드-세비야 구간이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열차 내에서 영화 상영, 커피음료 등과 같은 서비스도 하고 있다.

요금은 목적지, 시간대, 등급 별로 차이가 있으며, RENFE의 홈페이지 <http://www.renfe.es>에서 조회와 기차표 구입이 가능하다.

□ 고속도로 현황

총 연장 약85,380KM로써 수도 마드리드 기점으로 1-6번 의 6개 고속도로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등 주요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 고속도로 화물 수송량은 152,250Tm/km 로 전체 화물 수송의 약 75% 정도를 차지한다.
 - N-I : 마드리드-부르고스-산세바스티안(산탄데르,빌바오)
 - N-II : 마드리드-사라고사-바르셀로나
 - N-III : 마드리드-발렌시아
 - N-IV : 마드리드-꼬르도바-세비야(그라나다)
 - N-V : 마드리드-팔라베라-메리다(까세레스)-포르투갈
 - N-VI : 마드리드-엘에스꼬리알-(바야돌리드)-라 꼬루냐

2) 통신

□ 국제전화

한국 스페인으로 전화하려면 001이나 002를 누른 후 스페인 국가번호 34를 누르고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누른다(한국에서 스페인 주재 마드리드 코트라 무역관에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001(또는 002)-34-91-556-6241을 누른다).

스페인 한국으로 전화하려면 00번을 누른 후 한국 국가번호 82 + 지역번호(0번 제외)와 전화번호를 누른다. 스페인에서 서울의 3460-7114에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00-82-2-3460-7114를 누른다.

스페인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하려면 먼저 900-9900-82를 누르면 한국통신 안내방송이 나온다. 그 다음 0번을 눌러서 한국 교환원을 호출해서 전화번호를 말한다. 호텔에서 전화 이용 시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국내전화(시내 + 시외)

스페인은 시내전화이건 시외전화이건 모두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후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다. 주요 지역번호는 마드리드 91, 바르셀로나 93, 발렌시아 96 이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화요금은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보다 두배 정도 비싸므로 한국에서 출장 오기 전 미리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오거나 한국에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가는 것이 경제적이다.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요금이 서너 배는 더 비싸다.

공중전화는 시내 곳곳에 흔하게 설치 되어 있고 20센트짜리 동전이나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걸게 되어 있다. 가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말을 하려면 동전 투입구 옆에 부착되어 있는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해야 상대방에 들리게 되어 있는 전화기도 간혹 있다. 전화카드는 시내 곳곳에 있는 신문판매대 (KIOSCO-끼오스꼬 또는 ESTANCO-에스땅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장 기간이 긴 경우에는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불 카드제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즉석에서 휴대폰을 사서 쓸 수 있다. 전화기는 모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의 한국통신에 해당하는 TELEFÓNICA TIENDA의 모든 대리점에서 TARJETA ACTIVA(따르헤따 악띠바)로 이동 전화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즉석에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내준다. 전화를 사용하다가 충전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TELEFÓNICA 대리점, 신문판매대(KIOSCO), 은행 ATM기에서, 또는 전화를 걸어서 바로 충전할 수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호텔 예약 시에는 목적에 맞는 호텔 선정이 중요하다. 컨퍼런스, 회의, 전시회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행사와 연계되는 호텔을 이용하거나 근처의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이동이 편리하다.

이외 관광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가급적 구시가지 관광지 근처로 숙소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치안, 특히 소매치기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숙소를 정할 때에는 주변의 시설을 살펴보고 늦은 시간 또는 혼자 이동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예약이 가능하므로 스페인 호텔을 직접 예약하거나 국내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호텔의 위치 확인은 필수사항이다. 호텔은 별5(5star)부터 취사가 가능한 Hotel-apartamento, 여관격인 Hostal, Pension 등으로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도 좋은 편이다.

스페인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연중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동업자 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는 관계로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으며, 약 1개월 이전에 호텔을 예약하지 않으면 숙소를 구할 수 없을 때도 많다.

□ 주요 호텔현황 및 숙박비(싱글기준)

- 5 스타급
 - Ritz Madrid : 91-521-2857, US\$ 350
 - Villa Magna(Hyatt 계열) : 91-587-1234, \$280
 - Palace : 91-360-8000, US\$ 300
- 4 스타급
 - Castellana Intercontinental : 91-310-0200, \$240
 - Chamartin : 91-334-4900, US\$ 100
 - Holiday-Inn Madrid : 91-456-8000, US\$ 170
 - Euro-building : 91-345-4500, US\$ 110
 - Eurobuilding 2 (아파트식) : 91-571-6794, US\$ 110
 - Meliá Castilla : 91-567-5000, US\$ 210

2) 식당

스페인의 한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당이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5시경부터 저녁 8시 정도 까지 주방을 달아서 음식주문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장시간 이전에는 문을 열지 않으므로 식당에 미리 전화하여 개장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스페인 식당의 개장시간

- 점심 - 14:00-17:00
- 저녁 - 21:00-24:00

□ 외국식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Jockey	C/Amodor de los Rios 6	91-319-2435	최고급 스페인 요리
Botin	C/Cuchilleros 17	91-366-4217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最古의 식당
Asador de Roa	C/Pintor Juan Gris 5	91-555-7813	갈비구이전문
La Dorada	C/Orense 64-66	91-570-2004	해산물요리
La Tahona	C/Capitan Haya 21	91-555-0441	양고기전문
Sirena Verde	Gran Via 62	91-547-3910	해산물요리
Donostiarra	Infanta Mercedes 79	91-579-0871	바스코요리
Rias Bajas	C/Alustante 11	91-413-4965	육류구이
La Arroceria	C/Orense 70	91-570-9360	빠에야전문

□ 한국식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고려정	C/Critobal Bordiu, 59	91-554-2034	시내북쪽에 위치 (지하철역: 누에보스미니스트리오스 Nuevos Ministerios)
신라정	C/Panama 4	91-457-8833	시내북쪽에 위치 13:30 오픈/월요일 휴점 (지하철역: 꾸스꼬Cuzco)
가야	C/Ferraz 38	91-547-6019	시내남쪽에 위치
서울정	C/Ronda de Segovia 25	91-457-1191	시내남쪽, 왕궁근처 위치 인터넷방송 시청가능
한강	C/ Atocha 94	91-528-1201	아또차 중앙역 근처 (지하철역 : 아또차 Atocha 또는 안톤마르틴 Anton Martin)
루카스 분식	Plaza Santa Catalina de los Donados 3	91-559-8411 91-541-3411	시내에 위치 (지하철역: 오페라 Opera) 라면, 떡볶이 등

아. 관공서 관행

- 스페인 관공서는 오전근무만 시행하므로 2시까지 관련 업무를 마쳐야 한다. 우체국도 2시까지만 근무한다.
- 근무시간은 보통 사무실의 경우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부터 3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시까지인 경우도 있다. 단, 바르셀로나의 경우 점심시간이 1시에 시작한다.
- 여권발급의 경우 보통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자동차 등록 시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 스페인 전역에 걸쳐 휴가기간이 시작되는 7월과 8월 중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도 시일이 평소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휴가기간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스페인 공휴일 표 (자치주별구분)

2007	DAY	NAME	NATIONAL - AUTONOMIC COMMUNITY
Apr	5	Easter-Jueves Santo	All the communities except Cataluña
	6	Easter	National
	9	Lunes de Pascua	Cataluña, Valencia, Navarra, País Vasco, La Rioja
	24	주 자체 축일	Aragon, Castilla y Leon
May	1	노동절 Labour's Day	National
	2	Madrid Community Festivity	Madrid
	15	San Isidro's Day- Madrid Patron	Madrid Community
	17	Letras Gallegas's Day	Galicia
	30	Canary Islands' Day	Canarias
	31	Castilla-La Mancha's Day	Castilla La Mancha..
Jun	9	Murcia's Day	Murcia
	9	La Rioja's Day	La Rioja
	24	San Juan's Day	Cataluña.
Jul	25	Santiago Apostol's Day-Galicia's Patron	Canarias, Castilla Leon, Galicia, Navarra, País Vasco
	28	Institutions Day	Cantabria
Aug	15	성녀 아순시온 축일	National
Sep	2	Ceuta's Day	Ceuta
	8	Asturias Day	Asturias
	8	Extremadura's day	Extremadura
	11	National Festivity	Cataluña
	15	Ntra. Sra. De la Bien Aparecida Virgen	Cantabria
Oct	9	Valencia's Day	Valencia
	12	성녀 펠라르 축일	National
Nov	1	Holy Festivity in honor of Dead people	National
	9	성녀 알무데나 축일	Madrid
Dec	6	스페인 제헌절	National
	8	성모승천일	National
	25	크리스마스	National
	26	San Esteban	Baleares, Cataluña

2) 출장지양기간

스페인은 17개 자치주가 자체적으로 연간 12일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어 주 별로 공휴일이 다르며 각 시, 주마다 자체로 제정한 휴일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지의 휴일을 확인한 후 출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연말연시

- 매년 12 월초인 12 월 6 일 제헌절에서부터 1 월 중순까지는 성모수태일-성탄절-주현절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다가 연초 시무식 직후에는 외부와 상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으므로 출장을 피해야 한다.

○ 부활절

- 3 월말의 부활절 주간(SEMANA SANTA)을 전후해서도 관공서, 은행,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1 주일 동안 휴무에 들어가므로 바이어 접촉이 어렵다

1년 중 여름휴가가 유난히 길기 때문에 바이어 방문 또는 업무를 위한 출장 시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7월에서 8월의 기간 동안 1달 정도 하기휴가를 실시하므로 실제 업무는 9월 이후부터나 가능하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 접촉 시에는 스페인 담당자가 이 기간 중 휴가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사전 확인 필요 사항

체류기간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증취득 여부

관광 목적의 90일 이내 체재에 대해서는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사증이 불필요하나 90일을 넘겨 체재하려는 경우 또는 취직, 취학, 영주,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목적에 맞는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주재원의 경우 노동허가를 전제로 한 거주 사증을 취득해야 하는 바 한국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스페인 측의 수락기업이 사증 신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사회노동성에 신청해 이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스페인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이 노동허가 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입국 사증이 발급된다. 입국 후의 자격변경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장기체류 시 참고 사항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허가(RESIDENCIA), 취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의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하지만 허가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 이전에 공무원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청시에 교부되는 신청 수리표를 제시 하면 된다. 거주 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기업 주재원은 노동허가 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사회 노동성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경찰서에 거주 허가를 신청한다.

업무상 출장을 오는 경우는 출장기간 중 전국 휴일 또는 방문지역의 자치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 확인한다. 고궁이나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찾을 경우 개장시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절별, 월별 또는 평일과 주말의 개장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보통 쇼핑센터의 경우 첫째 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레스토랑은 점심은 오후 2시부터, 저녁은 밤 9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가야 한다. 한국식당과 일부 식당의 경우는 오후 1시30분, 밤 8시30분 부터 문을 여는 곳도 있다. 따라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식사를 하려면 맥도널드, VIPS 등과 같이 상시 문을 여는 식당을 이용한다.

자동차로 약속 장소로 갈 경우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주변 유료주차장 위치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주변 도로변 주차 공간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여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할 수 있다. 유료주차장의 영업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므로 밤 10시 이후에 도착 하면 차를 뺄 수 없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장이 24시간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사전 확인한다.

주차 위반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차 가능 지역은 도로에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금지구역은 도로변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잠시 동안 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안전수칙

- 사고는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 사전에 여행국가의 우리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으로 여행정보 특히 치안정보를 파악한다. 절대로 많은 현금을 지참하지 않는다.
- 현금, 여권, 신용카드 및 귀중품은 호텔 내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외출 또는 불가피할 시는 여러 곳에 분산 휴대한다.
- 여권 및 항공권은 반드시 사본을 준비한다.
- 호텔로비나 식당 등에서는 항상 휴대품을 몸에 지닌 채 이동한다.
- 관광을 할 때에는 가급적 고가의 카메라, 캠코더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 야간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특히 단독 외출은 삼간다.
- 길을 물어보거나 과잉 친절한 사람들을 경계한다.
- 옷에 오물을 묻혀 산만하게 한 후 접근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 누가 보아도 관광객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은 가급적 피한다.
- 차량을 이용한 여행시(동양인이 운행하는 렌터카는 표적이 되고 있음)
 - 항상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을 방치하지 않는다.
 - 차량의 바퀴가 터졌다는 등의 구실로 접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조심한다.
 - 경찰을 사칭하거나 유사 경찰복장인의 불심 검문 시 필요한 신분증만 보여주며(지갑 채 건네는 것은 금물), 필요 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한다.
- 소지품 주의
 - 전국적으로 치안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찰들의 단속이 많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 및 관광객이 많은 특성 때문에 시내중심가 및 관광 명소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 특히 마드리드 시내중심가(Centro), 베히시장(Rastro), 관광지 및 기차역 (아또차Atocha역, 차마르틴Chamartin역) 등 외국인 관광객 운집지역 그리고 호텔, 공항에서 Check-in 할 때 소지품 소매치기 및 들치기 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호텔이나 미술관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시에서 내리거나 물품구매 후 지갑을 손에 들고 오래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력사건은 많지 않으나 최근 수차례 폭행을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집시나 불법 이민자들이 때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며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 대상이다.
- 소매치기 유형은 몇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달걀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거나 또는 주차된 차에 펑크를 내는 등 주의를 흐뜨린 후에 접근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소매치기 하는 수법이 많다. 이 외 최근에는 호텔 앞에서 정신을 잠시 잃게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적이 드물거나 늦은 시간에 호텔에 출입할 때는 주위를 잘 살펴보거나 가급적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3) 금기 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박물관등에서 관람 시 작품을 손으로 만지거나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위
-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부르거나 독촉하는 행위
- 기업체 등에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는 행위
- 고급식당에서 웨이터 안내 없이 직접 입장하여 착석하는 행위
- 콘서트, 연극 등 공연장에서 꽃다발 전달을 위해 무대위로 올라가는 행위
- 성당, 교회 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행위
- 산의 바위나 기념물, 유적지 등에 낙서 또는 각인하는 행위

카. 유용한 연락처

유용한 연락처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전화 : 34-91-556-6241 팩스 : 34-91-556-6868 주소 : P.Castellana 95, 10 28046 Madrid http://www.kotra.or.kr/ktc/TC010S.jsp?trade_cd=9513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마드리드)	전화 : 34-91-353-2000 주소 : 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http://www.mofat.go.kr/ek/ek_a003/ek_eses/ek_02.jsp
삼성전자(본사, 바르셀로나)	전화 : 34-93-261 6700 http://www.samsung.com/es
LG전자(마드리드)	전화 : 34-91-21-2222 http://es.lge.com
기아자동차(마드리드)	전화 : 34-91-579-6466 http://www.kia.es/
한국타이어(마드리드)	전화 : 34-91-383-5523
금호타이어(마드리드)	전화 : 34-91-767-1516
원더풀여행사	전화 : 34-91-402-3172
마드리드 민박(루까스)	전화 : 34-91-559-8411 http://www.imadrid.net/mdk/index.htm
마드리드 민박(서울하우스)	전화 : 34-91-316-1211 http://www.go.to/madrid119
마드리드 민박(까사마드리드)	전화 : 34-91-323-3801 http://www.hotelcasamadrid.com/kmain.htm
DHL	전화 : 37-91-747-3400

□ 현지 긴급상황별 주요 전화번호

○ 사건·사고

- Servicio de Emergencia y Rescate (위급상황 전반) : 112
- Policia nacional (국립 경찰) : 091
- Policia municipal (시경) : 092
- Guardia Civil : 062
- Tráfico (교통계) : 91-533-5300
- Grua Municipal (차량 견인) : 91-345-0666

○ 화재 (소방서 : Bomberos)

- Madrid Capital y Mostoles : 080
- Comunidad : 112
- Alcorcon : 092

○ 긴급 의료지원 (앰블런스)

- Insalud : 061
- Samur : 092
- Intoxicaciones (가스·약물중독) : 91-562-0420
- 적십자 : 91-522-2222, 91-335-4545

○ 기 타

- 신용카드 분실 신고
 - AMEX : 91-572-0303
 - VISA : 91-519-2100
 - Eurocard-Mastercard : 91-519-2100
 - Diner's Club : 91-547-4000
 - Cajamadrid : 91-519-3800
 - 4B : 91-362-6200
- 물건분실
 - 일반 분실물 : 91-588-4346
 - 택시에서의 분실물 : 91-588-4344
- 전화번호 문의 : 11818
- 호출택시(Teletaxis) : 91-371-2131, 91-371-3711
- 공항
 - Barajas 공항 : 91-305-8343
 - Iberia 항공 : 902-400-500
- 철 도 : 91-328-9020
 - 야간·공휴일 약국 문의 : 098

타. 관광명소

1) 마드리드 (Madrid)

□ 개 요

- 1561 년 Felipe 2 세가 수도로 선포
- 해 발 : 654m
- 인 구 : 약 500 만

□ 프라도 미술관 (el Prado)

- 개방시간: 화-토 09:00-19:00, 일, 휴일 09:00-18:00, 월-휴관

18세기 Carlos 3세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건축하였으며, 1819년 Fernando 7세에 의하여 왕실 미술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16세기 El Greco, 17세기 Velazquez, 18세기 Goya등 스페인의 중세3대화가 작품을 위시하여 16세기 이전 초기 무명화가로부터 18세기 낭만주의 작품 및 고야의 회색시대 암흑의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유럽중세회화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근대 작가 들의 그림은 소피아 미술관등 다른 미술관에 보관되어있다.

일요일에는 관람료가 무료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 소피아 현대미술관 (Reina Sofia)

- 개방시간: 월. 수-토 10:00-21:00, 일 10:00-14:00, 화-휴관

1986년 개관한 현대미술관. 현 왕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게르니카를 포함한 다수의 피카소, 미로, 달리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일요일 입장 무료.

□ 대광장 (Plaza Mayor)

1619년 Felipe 3세시 건립된 100m x 200m 의 장방형 광장으로 총 136개의 방으로 구성된 4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광장 주변지역에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식당, 카페, 선물집 등이 있으며 이중 특히 1725 년 문을 연 Botin 식당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헤밍웨이가 애용 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 스페인 광장 (Plaza de España)

1930년 Alfonso 13세 때 건립 되었다. 작가 Cervantes 및 주인공 Don Quijote 및 Sancho Pancho의 동상이 있다.

□ 왕궁(Palacio Real)

- 개방시간; 월-토 09:00-18:00, 일, 휴일 09:00-14:00(동계기간 10.1-3.31 월-토 09:30-17:00)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왕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내부가 가장 웅장하고 호화로운 왕궁은 단연 마드리드 왕궁이다. 흔히들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둘을 비교해보면 마드리드 왕궁의 내부가 훨씬 더 웅장하고 호화로운 데에 놀라게 된다.

사방 공히 150미터가 넘는 마드리드 왕궁은 방 수 만 무려 2,700개가 넘는다. 이중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방들은 스무 개 남짓으로 옛 스페인제국의 번영과 영화를 짐작함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감탄케 된다.

마드리드 왕궁은 비록 현재 국왕이 살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행사 시에는 관광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 1991년 중동평화협상, 2002년 유럽. 중남미 정상회담, 각국대사 신임장 제정 등이 그 예이다.

원래 무어족의 성채가 있던 자리에 1673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Felipe5세가 성채를 허물고 목재로 왕궁을 지었는데 1734년 크리스마스 날 화재로 거의 전소되었다. 4년 후 부르봉 왕가에 의하여 석재로 다시 지어진 것으로 30년 걸려 카를로스3세때 완공되었다.

왕궁 안에는 국왕이 각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장엄한 느낌의 옥좌의 방, 다채색 화법의 대리석으로 치장된 가스파리니의 방, 88개의 도자기가 서로 연결, 분해조립이 가능한 도자기의 방, 노란색으로 색조를 통일한 노란 방, 중국풍으로 치장된 중국방, 약150명 정도가 함께 앉아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대 만찬장 등과 왕실용품 전시장이 있다.

왕궁을 돌아나오다 보면 마차박물관이 있는 앞뜰(모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며 저 멀리 옛 왕궁의 사냥터인 까사 데 캄포 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한 광장출구 쪽 오른쪽에 있는 스페인 제국시대의 기마병 모습 및 무기 등이 전시된 무기 박물관도 놓치기 아까운 관광 장소이다.

2) 톨레도 (Toledo)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Toledo는 중세의 분위기와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정지, 역사 그 자체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무대이기도 한 라만차 지방의 수도로서 이탈리아 로마와 함께 세계적으로 면적 당 가장 많은 수의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스페인(Spain)에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 밖에 없다면 반드시 톨레도(Toledo)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톨레도는 스페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심장에 해당하는 역사의 고도(古都)이다.

Ad 6세기경 서고트족이 왕궁을 건설한 이래 1560년까지 약 10세기간 정치,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써 따호(Tajo)강에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이다.

아랍,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등 모든 예술양식의 총집산지인 중세 서양문명의 중심지로 1986년 12월 UNESCO에 의해 세계 문화재로 지정된바 있다.

16세기에 이미 정치와 경제의 중심은 현 수도인 마드리드로 옮겨 갔지만 현재 인구 10만이 채 미치지 못하는 톨레도에는 전통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옛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 도시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스페인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톨레도의 역사는, 이 지역에 이베로(Ibero)족의 한 부류인 카르페타노(Carpetano)인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된다. 카르페타노인들의 정착지는 고대 로마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로마(Roman)인들의 침입을 받았는데 BC 192년 로마의 집정관 풀비우스(Fulvius)가 고대 로마제국의 영토로 합병시켰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톨레툼(Toletum)'이라 불렀는데, 오늘날 '톨레도 (Toledo)'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톨레도를 말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유럽에서 4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사원 (Catedral)과 내전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알카사르(Alcazar)이다.

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이 고딕 대사원은 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이다.

전형적인 프랑스 고딕 양식의 이 대사원은 페르난도 3세의 명령에 의해 1226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267년 뒤인 1493년에 완성됐다. 그 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개축 되어 원래의 모습은 별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지만 각 시대의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성이 유지되어 그 훌륭함이 보존되고 있다.

5개의 큰 홀로 구성된 대사원의 중앙홀 천정은 32M에 달하며, 실내에는 성기실, 보물실 그리고 엘 그레코가 그린 '성의를 입은 사람'등 진귀한 작품과 아울러 루벤스의 그림도 소장되어 있다.

본당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보물실에는 16세기 초에 'Juan de Arte'가 만든 높이 3M, 총 중량 200KG의 금은보석으로 세공된 성병현치대가 놓여있는데 그 일부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본당 중앙 주변의 합창단 CORO석에는 아론소 베르게가 그라나다 전쟁장면을 자세하게 조각해 놓았다.

톨레도 우측에 위치한 알카사르(Alcazar)는 마을 전체가 배라면 돛대라 할 수 있다.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면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이 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Alfonso 10세의 왕궁터에 건설된 Carlos 1세의 성으로 13세기에 만들어져 대대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스페인 시민전쟁(1936-39)때는 프랑코 중심의 군사제 주장 국수파(Nationalist)와 좌파 민주주의제도 지속을 주장하는 공화파간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시대별 군사문화를 전시하는 전쟁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곳 알카사르에 얹혀있는 "모스카르도 대령"의 일화는 전쟁의 아픔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공화파의 위세에 눌려 톨레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버티고 있는 국수파를 지휘하던 "모스카르도 대령"은 "루이스"라는 12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도 "모스카르도 대령"은 끝까지 항전하였고 그 와중에 아들이 인질로 적에게 잡히게 된다. 적군은 항복하지 않을 시 아들을 죽이겠다고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대령은 아들을 바꿔달라 하여 조국을 위해 용감히 죽을 것을 말한다. 충성이 울리고 아들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 없이 또다시 항전은 계속되었고 마드리드에서 전열을 정비한 국수파의 반격이 개시되어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곳 알카사르에는 당시의 모스카르도 대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령의 초상화와 아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적군의 협박을 받았던 전화기가 초상화 밑에 놓여져 있으며 한국어로 당시의 통화내용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다. 전몰자의 계곡 (Valle de los caídos)

마드리드 북서쪽 54Km, 해발 1000m의 과달라마 산맥 남쪽 기슭에 위치한 "전몰자의 계곡"에는 거대한 암반 위에 높이 150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석재 십자가가 솟아 있다.

이곳의 대사원은 강철같은 암반을 260m나 뚫어서 세운 것인데, 프랑코 총통의 지시로 1936년-1939년 스페인 내전 때 희생된 약5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무명 용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쟁포로를 동원, 내전직후인 1940년에 착공, 1958년 완공되었다.

당시 전쟁포로들은 1일을 일하는 댓가로 2일의 형이 감량되었다 하며 험난한 공사 중에 수백명이 희생되었을 것 같은 인상을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한다. 십여 킬로미터 밖에서도 웅장한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150m의 십자가는 직경 42m의 예배당 원형 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형천장에는 영웅, 순교자, 스페인 성인들을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한편, 예배당내에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 및 혁명동지 "호세 안토니오"의 묘소가 있으며 묘소 앞에는 언제나 화사한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라. 세고비아 (Segovia)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세고비아는 로마시대의 수도교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중세에 지어진 성벽이 지금도 구시가를 에워싸고 있다. 특히 수도교는 유럽 각지에 남아 있는 로마 수도교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전체 길이 728미터에 높이 28미터로서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한다.

구시가 끝 쪽의 바위산에 서있는 알까사르(Alcazar)는 13세기에 축성된 성으로 그 우아한 자태로 백설 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성의 모델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구시가 중심부 중앙광장에 서 있는 대성당(Catedral)은 1577년에 완공되었는데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으로 "까페드랄의 귀부인"이란 애칭을 갖고 있다.

마. 알함브라궁전 (la Alhambra)

알함브라 궁전(Alhambra)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유적지의 하나이다.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Granada)에 위치한 이 궁전은 해마다 수십만의 인파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알함브라 궁전은 한때 스페인을 한때 점령하며 유럽을 호령했던 아랍인들이 최후까지 스페인군에 저항했던 곳으로 그 양식과 분위기에 있어 독특한 아랍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대형 건축물이다. 궁전 안에는 분수가 있는 유명한 뜰이 있으며 내부에 오래된 건물을 호텔로 사용하여 숙박도 가능하다. 단, 가격이 비싸고 연중 예약이 만원을 이루므로 미리 알아보아야만 한다.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하루 관람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관람 가능시간 및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알함브라 궁전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곡으로도 무척 유명하다.

바. 플라멩고 (Flamenco)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시"에 의해 전승되어 온 춤, 노래, 기타연주를 총칭하는 종합 예술로써 아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집시족"은 인도의 편잡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로써 로마시대에 이집트인으로 오인하여 "이집트인"이라 불리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형되어 "집시"라는 명칭으로 고정되었다 한다.

1783년 Carlos 3세시 집시의 거주권 인정 후부터 일반 스페인 사회에 전파된 플라멩고는 18세기 말부터 성행되어 현재는 스페인 민속무용을 대변하게 되었다.

대체로 집시의 애환을 나타내는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플라멩고는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현란한 발동작에 눈길을 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동작과 순간순간 변하는 얼굴 표정이라 한다.

플라멩고의 기본 형태는 첫째, 발 구르기(Zapateados), 둘째, 손뼉치기(Palmadas)이다.

사. 투우 (Toros)

귀족이나 기사들의 말을 타고 숫소와 싸움을 벌이는데서 유래된 투우는 18세기 초에 현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투우는 마따도르, 피까도르, 반데리에로가 한 팀을 구성하여 소와 대결을 한다. 먼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마따도르가 나와 카포테라는 두꺼운 망토로 달려드는 소를 피하면서 성질이나 속력, 버릇 등을 파악 하며 그 다음에 피까도르가 등장하여 긴 창으로 소의 견갑골을 찔러 힘을 빼게 만든다. 다음으로 반데 리에로가 등장하여 짧은 작살 6개를 소의 등에 찌르며 다시 마따도르가 등장하여 몰레타라는 붉고 둥근 천으로 달려드는 소를 피하며 기운을 뺀 다음 마지막 긴 검으로 소의 숨통을 끊는 순서로 진행된다.

투우 시즌은 매년 3월 19일 발렌시아의 “불축제”를 시작으로 10월12일 사라고사의 “필라르 축제”까지 이어지는데, 마드리드는 5월15일 “산이시드로 축제”를 전후에 한달 여간 거의 매일 개최된다. 투우장은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1급 투우장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발렌시아 등 7개 도시에 있다. 10월에는 시즌이 끝나므로 관광시 참고하자.

아. 기념품 구입

스페인에서 구입할만한 기념품으로는 발렌시아 지방의 유명 도자기인 야드로(Lladro), 톨레도(TOLEDO)의 금세공품(Damasquinados), 모조진주 악세사리 마호리카(Majorica), 구두, 의류, 가죽제품 등이 있다.

○ 주요 쇼핑처: El Corte Ingles(백화점)